

기획 김정의 김성희 김현정 박선미 황선희 이효정 조재희 민혜정

문법·말하기·듣기·읽기·쓰기

STUDENT'S 3B

내용구성표

7	7112	CEVO CELLO	말하기	
과	제목	문법 (Grammar)	대화 (Dialogue)	과제 (Task)
	날씨와 여행	p 18 -은/는데③ -을지도 모르다	p 20 조언하기 경험 말하기	p 22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2	음식	p 34 -을래요? -네요	p 36 음식 설명하기 요청하기	p 38 친구와 식당에 가 보세요
3	건강	p 50 -았/었더니① -았/었더니② -다가②	p 53 안부 묻기 증세 설명하기	p 56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세요
4	쇼핑	p 68 -더라고요 -게	p 70 전자 제품 설명하기 추천하기	p 72 전자 상가에서 전자 제품을 사 보세요
5	분실	p84 -아/어 있다 -은가/나 보다	p 87 물건 묘사하기 상태 묘사하기	p 90 분실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세요
6	실수와 변명	p 102 -느라고 -은/는 줄 알았다	p 104 변명하기 실수 말하기	p 106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해 보세요
7	추억	p 118 -았/었던 -던 -고 나서	p121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추억 말하기	p 123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8	후회와 계획	p 134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을까 하다	p136 아쉬운 점 말하기 계획 말하기	p 138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인터뷰해 보세요

듣고 말하기 (Listening & Speaking)	읽고 말하기 (Reading & Speaking)	단어 · 표현 정리	발음
p 24 일기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 27 정동진에 다녀와서	여행지 풍경 바람이 강하다 쌀쌀하다	p 31 햇빛 낮잠 바닷가
p 40 복날이 뭐예요?	p 43 콩나물 국밥이 시원했어요	^{p47} 나물 전 탕	p 47 방금 양념 상담
p 58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p 61 한국인의 건강	p 65 가스가 차다 눈이 충혈되다 두통이 심하다 속이 답답하다	p 65 늙다 읽다 맑다
p74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p 77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사람들	p 81 TV 홈쇼핑 대형 할인 매장 벼룩시장 인터넷 쇼핑몰	p81 별로 팔려요 일시불로
p 92 금도끼와 은도끼	p 95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	p 99 경찰서 분실물 센터 사례금 큰일 났네	p 99 비슷한 거 인터넷해요 깨끗해요
p 108 지연이는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p111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p 115 변명하다 사과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못했어	p 115 듣느라고 달려 있는 늦는다고
p 124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p 127 나의 대학 시절	p 131 강의 학번 수료하다 입학하다	p 131 볼일 서울역 스물 여덟
p 140 .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p 143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p 147 작심삼일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p 147 후회 해외 취직

날씨와 여행

학습 목표

말하기

문법 p18 -은/는데③ -을지도 모르다

대화 p20 조언하기 경험 말하기

과제 p22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듣고 말하기

p24 일기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고 말하기

p27 정동진에 다녀와서





-은/는데③



문법1



연습해 보세요.

- A 친구 만나서 뭐 하셨어요?
 - B 친구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친구와 한국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 ② A 주말에 뭐 하셨어요?
 - 에버랜드에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 ③ ▲ 부산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 KTX를 탔어요. 빠르고 편했어요.
- ④ ▲ 요즘에 아르바이트한다면서요?
 - B 네, 번역 일을 해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 ♦ 5 ▲ 지금 사는 집이 어때요?
 - 화교 근처 하숙집에 살아요. 시설이 좋은 편이에요.



서울에서 등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어떤 영화 봤어요?

요즘 어떤 책을 읽어요?

한국 가요를 들어 봤어요?

한국에서 어디에 가 봤어요?

서울에서 등산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북한산에 가 봤는데 서울이 다 보여서 좋았어요.

문법2



등 연습해 보세요.

✓ 없다 알다 가다 바뀌었다 출발했다

- ▲ 시간이 있으면 주말에 영화 보러 가요.
 - Β 네, 좋아요. 하지만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표가 없을지도 몰라요. 예매해야 돼요.
- ② ▲ 한스 씨,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 B 글쎄요, 일이 많아서 이번에는 휴가를 못
- ② ⑤ ▲ 혹시 한스 씨 연락처를 아세요?
 - B 저는 모르는데 카밀라 씨는

. 한번 물어보세요.

- △ 本가 밀려서 약속 시간에 많이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윤호도 늦겠지?
 - ₿ 윤호는 부지런하니까 벌써

. 전화해 보자.

- ⑤ ▲ 어제 한스 씨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았어요.
 - ₿ 한스 씨가 휴대 전화를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1 200년 후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날씨

음식

옷

집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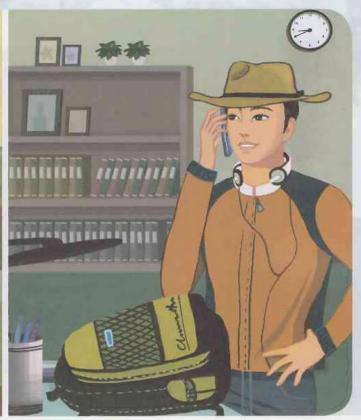
조언하기



대화1

여행 가는 친구에게 조언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은 여행 준비 다 됐어?

보민 어, 이제 가방 메고 나가기만 하면 돼.

가은 우산도 넣었지?

보민 우산? 날씨가 좋은데 필요할까?

가은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거기는 비가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거야.

보민 알았어. 그럼, 가지고 갈게.

가은 재미있게 놀다 와.

보민 그래, 갔다 와서 보자.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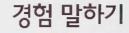
여행 가는 곳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행 가는 곳은 쌀쌀할지도 모릅니다.

여행 가는 곳은 햇빛이 강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행 갈 때 무엇을 준비하는지, 왜 그것을 준비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여행 갈 때 갑자기 아플지도 모르니까 꼭 약을 가지고 가요.





휴가 때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2



유키 한스 씨, 휴가 때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한스 네, 잘 다녀왔어요.

유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한스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유키 그래요? 제주도에서 뭐 하셨어요?

한스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금산에서 인삼주를 마셨다 → 맛과 향이 좋았다

• 저라도

담양 **대나무 숲에서 산책했다** → 공기가 깨끗했다

•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다 → 바다가 아주 아주 아름다웠다

강원도

횡성에서 한우를 먹었다 → 부드러웠다

• 경상도

주산지에 **갔다** → 풍경이 멋있었다

生州品

한국에서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준비

1. 여러분이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메모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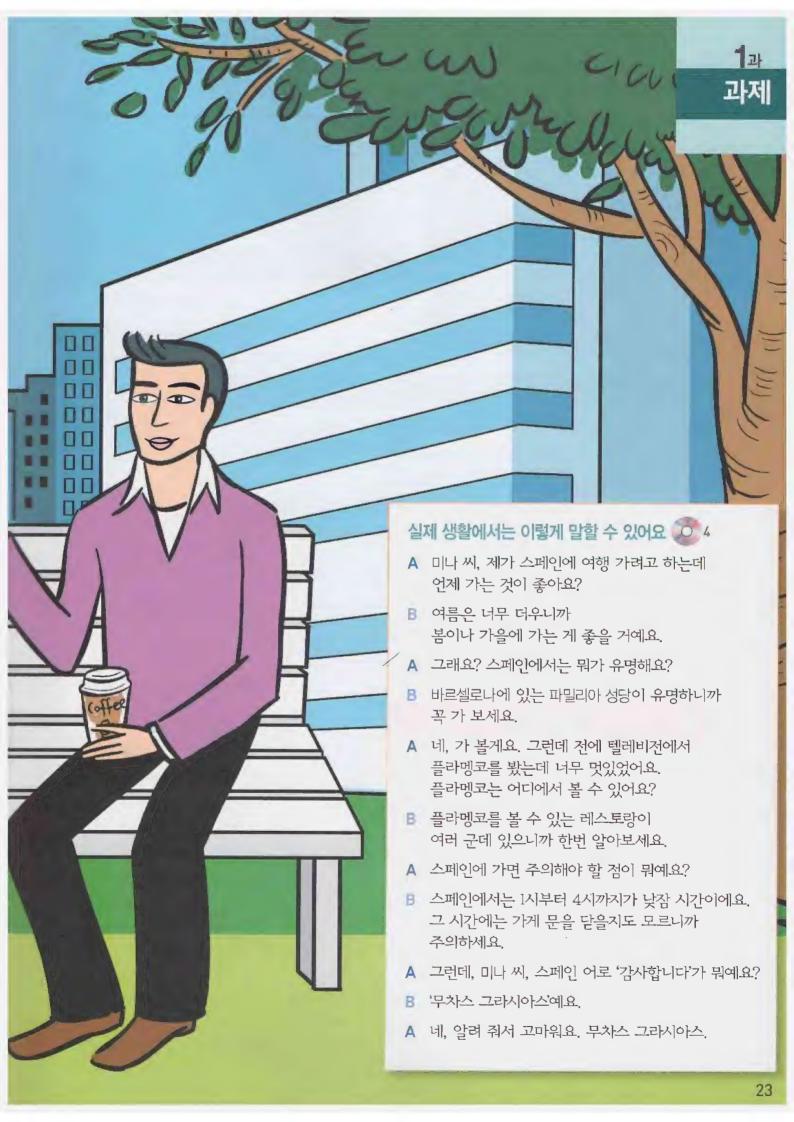
이름	여행지	날씨	볼거리	주의 사항	인사
미나		여름에는 너무 덥다	파밀리아 성당, 플라멩코		"무차스 그라시아스"
***************************************		***************************************			

활동

- I. 친구들은 만나서 여러분이 가 본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2. 친구의 이야기를 잔듣고 메모하세요.

정리

어떤 여행지에 가고 싶은지 이야기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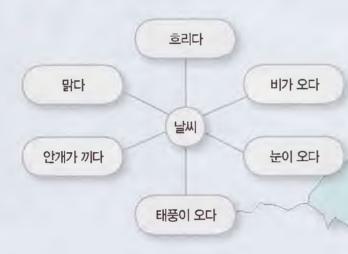


듣고말하기

일기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온은 몇 도입니까?

아침 최저 기온	***************************************	도
낮 최고 기온	***************************************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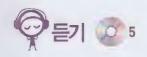
국내 주요 날씨

도시명	11/19(수)	11/20(복)	11/21(금)
서울	0~7°C	0~7°C	0~9°C
제주	9~14°C	10~15°C	11~16°c
부산	7~16℃	9~16°C	5~14°C



영동





일기 예보

- 내일 날씨가 어떻습니까?
- 태풍이 _____을/를 지나간다.



대회

- 미나 씨와 윤호 씨가 일기 예보를 들은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씨하고 윤호 씨, 한스 씨는 내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미나 씨와 윤호 씨는 내일 어떻게 하고 싶어합니까?

가 누가 말했는지 ✓ 하십시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일기 예보에서 내일 날씨가 어떻다고 했어요?
- 2. 미나 씨와 윤호 씨는 여행 계획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요?
- 3. 미나 씨는 비가 오면 뭐 할 거라고 했어요?
- 4. 미나 씨는 여행을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 5. 유호 씨가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니까 미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 6. 윤호 씨는 왜 마지막에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미나 :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유호 : 2, 에 관한 1. 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미나 : 2. 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윤호 : 시간하고 돈을 3.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00 7

- 1.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 2.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미나 씨는 윤호 씨, 한스 씨와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기 예보에서 했어요. 미나 씨는니까 가자고 했고, 윤호 씨는 태풍에 관한 일기 예보는 항상 맞으니까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면 너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 씨는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가겠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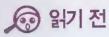
들기후 🕝

가 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나 씨와 유호 씨처럼 대화해 보세요

나 써 봅시다.

'해 봅시다'에서 한 대화를 써 보세요.



기차 여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를 여행했습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구경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고 가 보고 싶은 곳을 선택하세요.



<mark>1</mark>과 읽고말하기

의 위기

● 다음은 보민 씨가 여행을 한 후에 쓴 글입니다. 보민 씨는 어느 곳을 다녀왔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밤 9시에 청량리 역 시계탑 앞에서 만났다. 우리가 탈 기차는 10시 기차라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렸다.

기차를 탔는데 밤이라서 창밖의 경치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기차 안에서 밥새 재미있게 놀았다.

새벽 4시 40분쯤 우리는 정동진 역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바닷가로 갔다. 가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닷가에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걱정을 했다.

한 시간쯤 기다리니까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날씨가 흐려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것을 보려고 밤 기차를 타고 갔는데 못 봐서 아쉬웠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한 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삼척에 있는 환선굴을 보러 갔다. 버스에서 내려서 동굴까지 40분쯤 걸어서 올라갔다. 너무

힘들고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동굴 안은 냉장고처럼 시원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크고 넓었다. 이상하게 생긴 돌도 많고 호수도 있었다. 그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 다음 코스는 어시장이었다. 방금 잡은 살아 있는 생선들이 많았다. 우리는 시장을 구경하고 특히 물오징어가 유명하다고 해서 신선한 오징어 회와 매운탕을 먹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마른오징어를 조금씩 샀다.

우리는 오후 4시쯤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꼭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것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진 것 같았다.

가 간 곳의 순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일을 메모하십시오.

()	()	()	()
어시장	정동진 바닷가	청량리 역	환선굴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기차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했어요?
- 2. 정동진 역에 도착한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 3. 왜 해가 뜨는 것을 못 봤어요?
- 4. 환선굴은 어땠어요?
- 5. 어시장에서 무엇을 했어요?
- 6. 여행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요?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기차를 탔는데 밤이라서 창밖의 경치를 볼 수 없었다.
- 2.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걱정을 했다.

<mark>1</mark>과 읽고말하기

라 다음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읽기 후 😡

가 해 봅시다.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나 써봅시다.

기억에 남는 여행에 대해서 써 보세요.





1, -은/는데③ 해수욕장에서 수영했는데 바다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② 8 햇빛 [핻삗] 낮잠 바닷가

2. - 을지도 모르다

여기는 날씨가 좋지만 거기는 비가 올지도 몰라.



날씨와 여행

날씨 바람이 강하다 쌀쌀하다 안개가 끼어 있다 태풍이 오다 태풍이 지나가다 햇빛이 강하다 흐리다

여행지 코스 풍경

볼거리 대나무 숲 동굴 어시장 해수욕장 호수

일기 예보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말하기

명사 레스토랑 성당 한우 한우가 부드럽다

동사

메다 가방을 메다 조언하다

형용사

(-이/가) (-보다) 낫다 부지런하다

기**타·표현** 맛이 좋다 여러 군데 차가 밀리다 향이 좋다 갔다 와서 보자. 재미있게 놀다 와.

듣고 말하기

명사 낮 동해안 전국적

동사 (-이/가) 맞다 (-이/가) 틀리다 취소하다

기타·표현 22도 돈을 들이다 시간을 들이다 둘이서 갈게요.

읽고 말하기

명사 새벽 시계탑 패스트푸드점 해 해가 뜨다

동사 잡다

형용사 아쉽다

부사 밤새 방금

기타·표현 땀이 나다 (-이/가)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생선



]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날씨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학습 목표

말하기

문법 p34 -<mark>을</mark>래요? -네요

대화 p36 음식 설명하기 요청하기

과제 p38 친구와 식당에 가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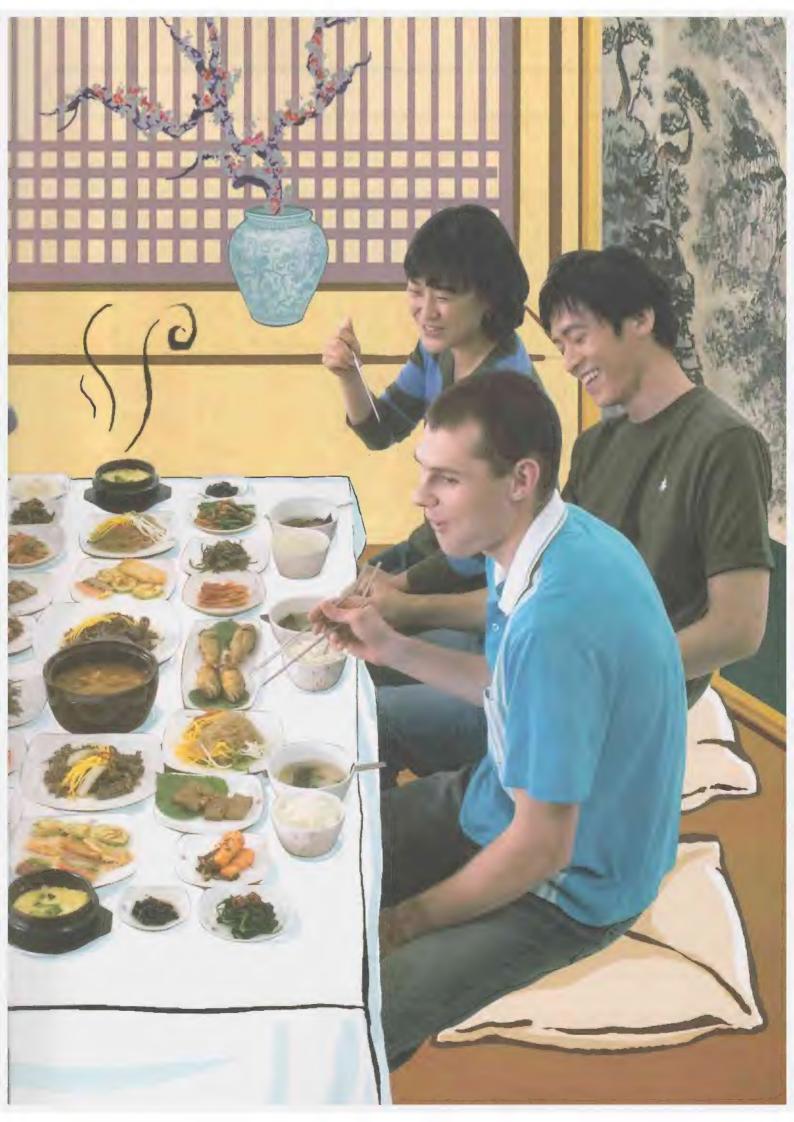
듣고 말하기

p40 복날이 뭐예요?

일고 말하기

p43 콩나물 국밥이 시원했어요







문법1



🌄 1. 연습해 보세요.

- 에 상우 뭐 마실래? 미나 나는 커피.
- 상우 선생님, 어느 자리에 선생님 저는 여기에 앉을게요.
- 상우 이거 한국 과자인데 한번앤디 네, 한번 먹어 볼게요. 고마워요.

2. 연습해 보세요.

- ▲ 오늘 필통을 안 가져왔는데볼펜 좀 빌려 주실래요 ?
 - B 네, 빌려 드릴게요.
- A 이 책 좀 가은 씨한테B 네, 만나면 전해 드릴게요.

☞ 주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같이 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동물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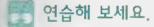
반가워요.

말하기

문법2

저는 독일에서 온 한스라고 해요.





- B 집이참 좋네요.
- ▲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 ₿ 한스 씨는 매운 음식도 잘
- ▲ 이거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 보세요.
 - B 정말
- - B 그래요? 집이
 - ▲ 어렸을 때 제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 B 지금은 키가 큰데 그때는

교실을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마사미 씨가 오늘 치마를 입었네요.

교실 창문이 참 깨끗하네요.

말하기

음식 설명하기



대화1

식당에 갔을 때 메뉴에 모르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윤호 카밀라 씨, 뭐 드실래요?

글쎄요, 저분이 드시는 게 뭐예요?

윤호 아, 저거요? 파전이에요.

월로 만든 거예요?

윤호 밀가루와 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윤호 양념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저거 한번 먹어 볼게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파전 밀가루와 파 양념간장에 찍다



닭칼국수 국수와 닭 국물 양념을 넣다



해물탕 여러 가지 해물 끓으면 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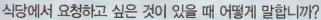


불**고기** 소고기 구워서 상추에 싸다



돌솥 비빔밥 밥하고 야채 고추장을 넣고 비비다

대화2





유호 여기요,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좀 덜 맵게 해 주세요.

〈잠시 후〉

유호 닭갈비 맛이 어때요?

카밀니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잠시 후〉

윤호 그런데 닭갈비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키밀리 1인분 더 달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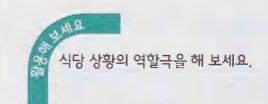
네, 그래요. 아저씨, 여기 닭갈비 1인분 더 주세요. 유호

닭갈비를 먹습니다. 닭갈비가 부족해서 1인분을 더 달라고 합니다

불고기를 먹습니다. 상추가 부족해서 상추를 더 달라고 합니다.

갈비를 먹습니다. 불판이 더러워서 불판을 갈아 달라고 합니다.

해물 파전을 먹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남은 음식을 싸 달라고 합니다.



준비

- 여러분 나라의 음식으로 식당 메뉴판은 만드세요.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때는 음식 이름은 재미있게 바꾸세요.
 예) 삼계탕 - 여름닭, 비빔밥 - 모아밥
- 2. 메뉴에 있는 음식은 어떻게 선명하지 생각해 보세요.

선도성기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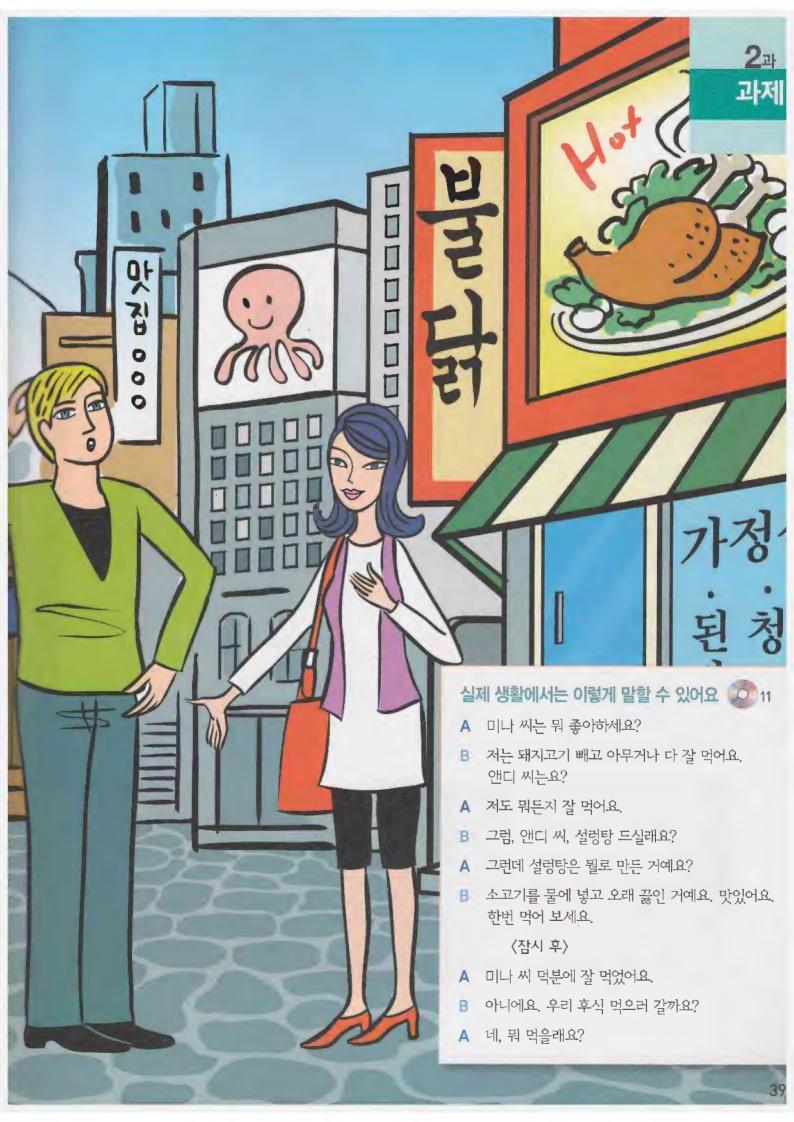
전문시설

활동

- I. 친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은 좋아하는지 몫어보고 음식은 추천해 주세요.
 - 추천한때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선명해 보세요.
- 2. 음식은 정한 다음 주문하고 필요한 것은 요청하네요.
- 3. 식사하면서 요즘 생활에 대해서 친구와 대회하네요.

정리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음식은 주문했어요?



<mark>듣고말하기</mark> 복날이 뭐예요?

즐 듣기 전

한국은 언제가 제일 덥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자주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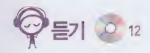


팥빙수



삼계탕





한국 사람들이 복날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왜 그 음식을 먹습니까?

가 내용의 순서를 찾으십시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삼계탕 집 앞에 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 2. 복날이 뭐예요?
- 3. 복날에 왜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 4.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 5. 상우 씨와 한스 씨는 왜 삼계탕을 먹을 수 없었어요?
- 6. 그 다음에 상우 씨와 한스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13

한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지요 뭐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상우: 저는 1. 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2. 는 다 좋아해요.

한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상우 : 한스 씨, 이제 우리 3. 예요.

직원: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닭이 다 4.

다음에 와 주세요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2 14



- 1.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 2.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한스 씨는 상우 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한 식당 앞에		***************************************	는 것을 !	봤어요.
상우 씨는 복날이라서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여름에는서	힘이	없는데	삼계탕을	먹으면
고 했어요. 두 사람도 삼계탕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두 사람 앞에서				

들기후

가 해 봅시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겨울에 자주 먹는 음식이 뭐예요? 》 여름에 자주 먹는 음식이 뭐예요? 〕

(힘이 없을 때 먹는 음식이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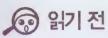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뭐예요?

나 써 봅시다.

'해 봅시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써 보세요.

콩나물 국밥이 시원했어요





2과 김고말하기

의기 위기

카밀라 씨가 전주에 갔다 온 후에 한스 씨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카밀라 씨가 전주에 가서 먹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Andrew Control of the	The second name of the second
메일읽기	10
메일쓰기	
수신확인	(±).
받은메일함	8
임시보관함	
스팸메일함	비우기
휴지통	비우기

<u></u> 답장	전체 답장	전달 ×삭제		
한스 씨에게 ① 보낸이 : ski	u@seokang.com	수신거부 주소록에 추가		
한스 씨	게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연락 못 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바빴거든요. 지난주에 방학을 해서 이제 시간이 좀 생겼어요. 지난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미나 씨의 고향인 전주에 갔다 왔어요. 미나 씨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즐겁게 주말을 보냈어요. 전주에서 제가 찍은 음식 사진을 같이 보내니까 한번 보세요.



돌솥 비빔밥

첫 번째 사진의 음식은 바로 돌솥 비빔밥에요. 한스 씨도 비빔밥을 많이 먹어 봤지요? 전주 돌솥 비빔밥은 서울에서 먹은 비빔밥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때 미나 씨는 전주에 오면 한정식을 꼭 먹어 봐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한정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찬이 몇 가지나 나왔는지 아세요? 밥하고 국을 빼고 반찬만 거의 스무 가지나 나왔어요. 예쁜 그릇에 여러 가지 나물과 전 등 아주 다양한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 모두 제 입에 맞았어요. 그리고 전주의 전통 술도 많이 마셨어요. 맛이 달콤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잔 마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속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미나 씨 어머니께서 술 마신 다음에 먹으면 좋다고 하시면서 콩나물 국밥을 해 주셨어요. 콩나물 국밥은 뜨거운 콩나물국에 밥을 넣어서 만든 건데



우리가 먹은 한정식



콩나물 국밥 사진이에요

먹으니까 시원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콩나물 국밥을 먹고 나서 이해하게 됐어요.

한스 씨도 한국에 오면 전주에 꼭 한번 가 보세요. 전주를 한국 음식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스 씨도 가 보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럼, 시간 있을 때 메일 한번 보내 주시고 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 답장 전체 답장 전달 ×삭제

가 카밀라 씨가 먹은 음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돌솥 비빔밥

- 1 카밀라 씨는 전주에서 처음 먹어 봤다.
- 2. 전주의 비빔밥이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한정식

- 1. 여러 가지 반찬이 아주 많이 나왔다.
- 2 반찬이 많긴 했지만 입에 맞지 않았다.



콩나물 국밥

- 1. 뜨거운 음식이긴 했지만 먹어 보니까 시원했다.
- 2. 술을 마셔서 속이 불편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과 읽고말하기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카밀라 씨는 한스 씨에게 무엇에 대해서 메일을 썼어요?
- 2. 카밀라 씨가 전주에서 먹은 돌솥 비빔밥은 어땠어요?
- 3. 카밀라 씨는 한정식이 나왔을 때 왜 놀랐어요?
- 4. 카밀라 씨는 무슨 술을 마셨어요? 맛이 어땠어요?
- 5. 미나 씨 어머니는 아침 식사로 왜 콩나물 국밥을 해 주셨어요?
- 6. 카밀라 씨가 콩나물 국밥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었어요.
- 2. 밥하고 국을 빼고 반찬만 거의 스무 가지나 나왔어요.

라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카밀라 씨	지난 주말	미나 씨 고향	전주	갔다 오다
돌솥 비빔밥	전주	서울	훨씬 더	맛있다
한정식	반찬	스무 가지	입에 맞다	
콩나물 국밥	술 마시다	속이 불편하다	시원하다	

읽기후 🞯

가 해 봅시다.

여러분 고향에는 어떤 음식이 유명해요? 친구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 써봅시다.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음식에 대해서 써 보세요.





1, **-을래요?** 점심에 뭐 먹을래요?

2. -네요 닭갈비가 아주 맛있는데 조금 맵네요.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16 방금 [방금]

양념 상담

단어표현

음식

국수 닭 칼국수 나물 돌솥 비빔밥 콩나물 국밥 콩나물국 전 탕 갈비탕

해물탕

고추장 밀가루 파

해물

한정식

덜다 비비다 싸다 상추에 싸다 찍다

양념간장에 찍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어요. 뭐 드실래요? 뭘로 만든 거예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좀 덜 맵게 해 주세요.

말하기

명사 국물 후식 메뉴 메뉴판

동사 (-이/가) 끓다 빼다 돼지고기 빼고 요청하다

형용사 부족하다 **부사** 덜 오래 자세히

기타·표현 불판을 갈다

명사

듣고 말하기

더위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종류 줄 줄을 서다 차례

기타·표현 힘이 생기다 네? 뭐라고요? 닭이 다 떨어졌어요.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지요, 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읽고 말하기

명사속속이 불편하다속이 시원하다

형용사 달콤하다

부사 거의

기타·표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식사 중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건강



말하기

문법 p50 -았/었더니① -았/었더니② -다가②

대화 p53 안부 묻기 증상 설명하기

과제 p56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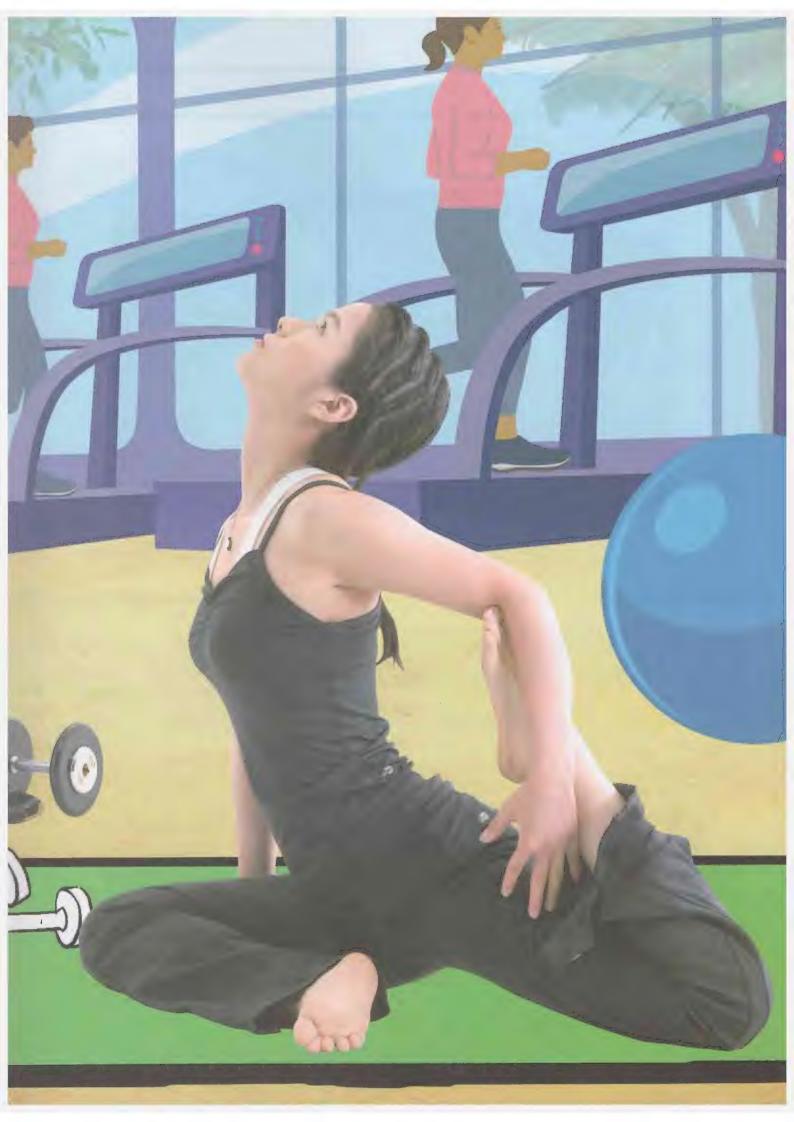
듣고 말하기

p58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일고 말하기

p61 한국인의 건강 관리





-아/었더니①



문법1





✓ 못 쉬었다 노래를 불렀다 운동했다 못 잤다 만났다

- ▲ 한스 씨,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 B 주말에 못 쉬었더니 힘들어요.
- ▲ 카밀라 씨, 졸리세요?
 - B 어젯밤에

졸려요

- - B 어제 노래방에서 두 시간 동안 목이 부었어요.
- ◎ ▲ 미나 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 B 오랜만에 친구를

기분이 좋아요.

- ▲ 모니카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 B 요즘

건강이 좋아졌어요.

다음 표현을 이용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피곤하다
 기분이 좋다
 몸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
 힘이 없다
 슬프다

 졸리다
 행복하다
 아프다

한스 씨,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늦게까지 놀았더니 좀 피곤해요.

문법2

카밀라 씨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 연습해 보세요.

(8)

- A 모니카 씨, 소영 씨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면서요?
 - 소영 씨한테 원룸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같이 살재요.
 말하다
- A 앤디 씨가 요즘 얼굴이 안 좋지요?
 - Ⅰ 네, 앤디 씨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몸이 좀 안 좋대요.
- ▲ 윤호 씨한테 제가 갈 수 없다고 전해 줬어요?
 - B 네, 갈 수 없다고 괜찮대요.

전해 주다

- ▲ 한스 씨한테 주말에 여행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 B 네, 한스 씨한테
 한스 씨도 같이

 가고 싶대요.
 여기하다
 - ▲ 보민이 집에 전화했어요?
 - 네, 보민이 집에동아리 엠티를 갔대요. 전화하다

어머니께서 보민이가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메모하세요.

무슨 운동을 하세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몇 시간쯤 걸으세요?

유키 씨, 무슨 운동을 하세요?



줄넘기를 해요.



활동이 끝난 후 '-았/었더니'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대답을 발표해 보세요.

유키 씨한테 무슨 운동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줄넘기를 한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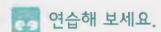


- に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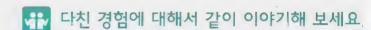
문법3





들다 끓이다 ✓ 하다 타다 치다

- ▲ 소영 씨,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 B 야구 경기를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 A 어떻게 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 B 테니스를 넘어져서 다쳤어요.
- ▲ 어떻게 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 B 스키를 다른 사람하고 부딪쳐서 팔이 부러졌어요.
- ▲ 어떻게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 무거운 짐을 허리를 다쳤어요.
- ▲ 어떻게 하다가 불에 데었어요?
 - B 라면을 불에 데었어요.



팔을 다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손을 벤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베었어요?

발목을 삔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삐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안부 묻기

말하기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1



윤호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카밀라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윤호 약은 먹었어요?

카밀라 네, 그런데 먹어도 좋아지지 않네요.

윤호 그럼, 병원에 한번 가 보세요.

라밀라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요?

윤호 사거리에 있는 내과가 유명하니까 거기에 가 보세요.

말일라 알았어요. 고마워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렌즈를 오래 끼다 → 눈이 충혈되다 일다 안과

노래를 많이 부르다 → 목이 붓다 먹다 이비인후과

아파 보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말하기

증상 설명하기



대화2

아파서 결석해야 할 때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니카 여보세요. 선생님, 저 모니카인데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씨,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모니카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모니카 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선생님 많이 다치셨어요?

모니카 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말래요.

선생님 많이 놀랐겠어요. 그럼, 푹 쉬고 빨리 나으세요.

다리 계단을 내려가다

어깨 무거운 짐을 옮기다

무릎 조깅을 하다

팔 테니스를 치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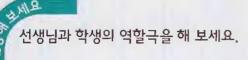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샤워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어서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세요

준비

1. 카드를 받고, 아픈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3일 전에 창문을 열고 잤습니다.

지금

- ❖ 목이 부었어요.
- ❖ 콧묵이 나요.
- •2•
- 2. 이야기는 내용은 쓰세요.

점심 때 햄버거를 급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 ♦ 배에 가스가 한 것 같아요.
- ❖ 속이 답답해요.
- ***
- **

활동

- 1. 환자 그룹 A와 병원 그룹 B로 나누세요. B는 접수서의 직원 연항과 의사 연항은 하세요.
- 2. A는 접수서에 가서 접수를 하고, B는 접수를 받으세요.
- 3. A는 의사를 만나서 증상은 이야기하고, B는 체방 카드를 이용해서 체방하세요.

병	증상	처방
감기	1. 목이 붓다	1. 쉬다
	2. 콧물이 나다	2. 찬 음식 X
소화 불량	1, 배에 가스가 차다	1. 규칙적인 식사
	2. 속이 답답하다	2. 조금씩 천천히 식/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 19

1. 장수하기

접수처 직원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환자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서 왔는데요.

접수처 직원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 네, 지난번에 한 번 왔는데요.

접수처 직원 그럼, 여기에 이름, 주민 등록 번호를 써 주시겠어요?

환자 네,

〈잠시 후〉 여기요

접수처 직원 저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름 부르면 오세요.

2. 장로 말기

의사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 목이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나는데요.

의사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환자 한 3일쯤 됐어요.

의사 그래요? 그럼, 어디 좀 봅시다. 목이 많이 부으셨네요.

환자 창문을 열고 잤더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의사 김기약 3일치 지어 드릴 테니까 드세요, 약 먹고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런데 찬 음식은 먹지 마세요,

환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배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팠습니까?



□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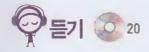
□ 속이 쓰리다



□ 토할 것 같다



□ 배가 살살 아프다



● 지훈 씨는 배가 아픕니다. 지훈 씨는 배가 아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 맞으면 ○, 틀리면 × 하십시오.

1.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 2. 며칠 동안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다. () 3.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샀다. () 4.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 5. 앞으로 맵거나 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 ()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지훈 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 2. 약사는 왜 지훈 씨에게 병원에 가 보라고 했어요?
- 3. 지훈 씨가 간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 4. 지훈 씨는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해요?
- 5. 지훈 씨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21



지훈: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1.

약사: 그러세요?

지훈 : 네. 그리고 2. 것 같을 때도 있고 3. 도 심해요.

약사 : 그럼,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병원에 가서 4. 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 22



- 1. 뭐 잘못 드셨어요?
- 2. 3일치인데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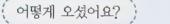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지훈 씨는 며칠 동안	서 약국에 소화제를 셔	사러 갔어요. 약사는 지훈 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	[원에 가서	라고 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다시 온 지훈 씨는	고 약을 받았어요.	
앞으로 지훈 씨는야 ㅎ	H요. 그리고	을 먹으면 안 돼요.

듣기후

가 해봅시다.

약사와 몸이 아픈 사람의 대화를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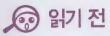






나 써 봅시다.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간 경험에 대해서 써 보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과 읽고말하기



●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까?

대한일보

8월 3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 이것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

1. 정신 건강 - 스트레스 해소 방법

우선 마음이 건강하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하거나 화가 나고,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풀까? 한국인 직장 남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 남성은 '술자리(18,2%), 운동(16.8%), 취미 생활(15.9%)'로, 여성은 '수다(18.3%), 문화생활(12.2%), 운동(11.4%)'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했다. 기타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목욕(사우나), 흡연, 산책, 게임' 등이 있었다.

2. 육체 건강 - 운동과 음식

최근 한국인 열 명 중 네 명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전에는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최근에는 스쿼시, 재즈 댄스, 요가 등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한강이나 학교 운동장, 동네 공원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인은 먹는 것에도 큰 관심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먹는 것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음식점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인의 34.2%가 건강식품을 먹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복용한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식품으로는 영양제, 한약, 인삼 등이 있다.

가 읽고 메모하십시오.

한국인의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스트레스 해소 운동과 음식 · 남성 ·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 ·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 -

3과 읽고말하기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 2. 한국인 직장인 남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 3. 한국인은 건강을 위해서 요즘 어떤 운동을 해요?
- 4. 한국인은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5.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식품들은 뭐예요?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
- 2.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식품을 더 많이 복용한다.

라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성별	다르다	남자 술자리, 운동	여자 수다, 문화생활
건강을 위한 운동	예전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최근	다양하다
건강식품	나이	많다	복용하다	영양제, 한약, 인삼

읽기후 😡

가 해 봅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킬까요?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 써봅시다.

'해 봅시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써 보세요.





1, - 았/었더니 ①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요. 3. - 다가 ② 네. 요리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2. - 았/었더니 ②

제가 카밀라 씨한테 많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좀 피곤하대요.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 23 늙다 [늑따] 읽다 맑다



건강

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증상 가스가 차다 눈이 충혈되다 두통이 심하다 속이 답답하다 속이 쓰리다 얼굴에 뭐가 나다 콧물이 나다 토하다

깁스를 하다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발목을 삐다 (-과/와) 부딪치다 (-이/가) 부러지다 손을 불에 데다 손을 칼에 베다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말하기

명사 형용사 규칙적 급하다 발목 급하게 먹다 접수 차다 접수처 찬 음식 접수를 하다

접수를 받다 기타·표현 렌즈를 끼다 진찰을 받다 약을 짓다 많이 놀랐겠어요. 처방하다 어디 좀 봅시다.

동사 내려가다

진찰

처방

환자

듣고 말하기

명사 소화제 식후 약사 위 위염 자극적 처방전 치료 치료를 받다

형용사 음식이 부드럽다

부사 꾸준히

기타·표현 3일치 뭐 잘못 드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가 봐야겠어요. 읽고 말하기

명사 전부 최근 건강식품 한약 달리기 흡연 마찬가지 문화생활 동사 사우나 복용하다 수 조사하다 수다 술자리 형용사 영양제 아깝다 육체 인삼 돈이 아깝다

기타·표현 정신 건강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인기를 끌다



병원에 가서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기 <mark>문법 p68 -더라고요</mark> -게

대화 p70 전자 제품 설명하기 추천하기

과제 p72 전자 상가에서 전자 제품을 사 보세요

듣고 말하기

p74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고 말하기

p77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사람들







문법1



🜅 연습해 보세요.









- 투안 씨와 같이 노래방에 갔는데 투안 씨가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
- 이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 🧻 제가 어제 투안 씨 여자 친구를 봤는데
- 💿 아까 복도에서 미나 씨를 만났는데
-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생활

학교 생활

친구

한국은 여름에 덥더라고요.



연습해 보세요.

- A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 B 그래요? 그럼, 빨리 고칠 수 있게 A/S 기사를 부르세요. 빨리 고칠 수 있다
- 🙋 🛕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 B 그럼, 사진을

사진기를 가지고 갑시다.

찍을 수 있다

- A 언제 사전을 돌려드릴까요?
 - B 내일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저녁까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 ▲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 B 시험을

미리 공부하세요.

잘볼수 있다

교실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는 게 어때요?

16----

▲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B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반 친구들한테 줄 선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코지 씨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항상 들을 수 있게 MP3를 선물합시다.

MP3

소설책

전자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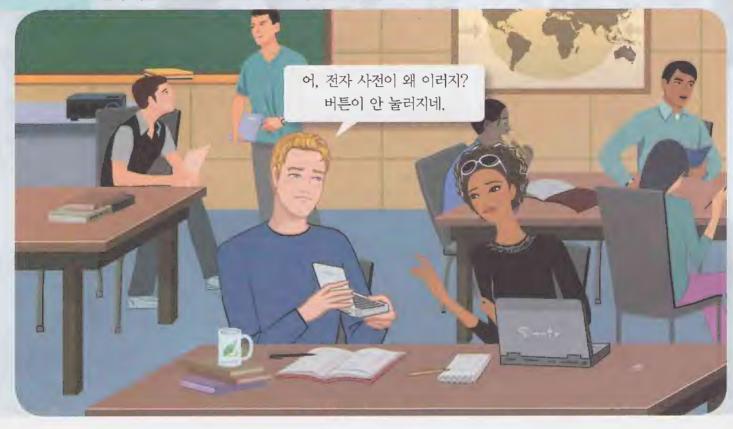
말하기

전자 제품 설명하기



대화1

전자 제품을 쓰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스 어, 전자 사전이 왜 이러지? 버튼이 안 눌러지네.

카밀라 어, 진짜 버튼이 안 눌러지네요. 고장 난 거 아니에요?

한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요.

카밀라 그럼,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쌀지도 몰라요.

한스 그래요? 그럼, 이번 기회에 바꿀까요?

카밀라 한국 전자 거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샀는데 좋더라고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전자 사전 - 버튼이 안 눌러지다

노트북 - 전원이 안 들어오다

MP3 - 소리가 안 나오다

청소기 - 소음이 심해졌다

면도기 - 작동이 안 되다

좋다

쓸 만하다

싸고 괜찮다

기능이 많다

튼튼하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이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고장 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1년 전에 MP3를 샀는데 고장 났어요.

어떻게 고장 났어요?

전자 제품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2



미나 투안 씨, 전자 사전 새로 사셨어요?

투일 아직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미나 어떤 걸 사고 싶은데요?

투입 저는 발음을 들을 수 있게 음성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나 그래요? 그럼, 전자 상가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전자 사전

MP3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신제품이 별로 없다

텔레비전

적당한 게 없다

전화기

세탁기

발음을 들을 수 있다 → 음성 기능

여러 번 따라할 수 있다 → 반복 기능

보다가 잘 수 있다 → 취침 예약 기능

전화를 못 받아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자동 응답 기능

빨래를 쉽게 말릴 수 있다 → 건조 기능



전자 상가에서 전자 제품을 사 보세요



준비

1. 사고 싶은 전자 제품 목독은 만드세요.

전자 제품

1. 전자 사전

2.

기능

음성 기능



- 1. 묵건은 파는 그룹 A와 묵건은 사는 그룹 B로 나누세요.
- 2. A는 전자 제품 사진은 여러 강 준비하세요.
- 3. A는 B에게 물건은 소개하고, B는 마음에 드는 물건은 구입하세요.



가격: 320,000원

기능: 방음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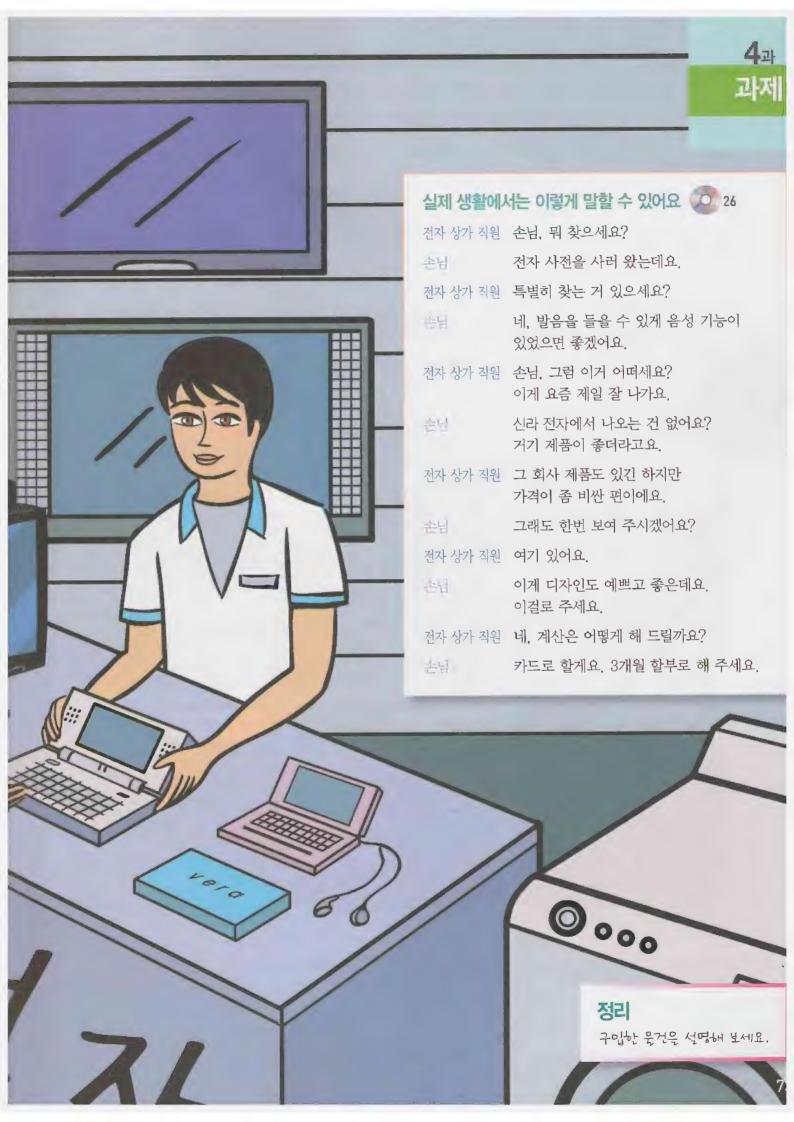
자점: 디자이이 예쁘다.



가격: 179,000원 기능: 녹음 기능

강점: 가디오도 된다.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1. 쇼핑을 좋아하세요?
 - ① 좋아하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 ③ 싫어하는 편이다

2. 보통 어디에서 쇼핑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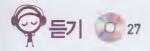








- 3.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세요?
 - ① 자주
- ② 가끔
- ③ 필요할 때만
- ④ 거의 안 한다



- 한스 씨가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미나 씨에게 물어봅니다. 한스 씨는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 미나 씨는 한스 씨에게 어디를 추천했습니까?



가 듣고 맞는 것에 ✓ 하십시오.

│ TV 홈쇼핑 │

가격	□ 비싸다	□ 비싸지 않다
품질	□ 믿을 수 있다	□ 믿을 수 없다
교환이나 반품	□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구입 방법	□ 직접 가서 산다	□ 전화로 산다
지불 방법	□ 은행에 입금	□ 신용 카드
배달	□ 해 준다	□ 안 해 준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미나 씨와 한스 씨는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2. 미나 씨는 TV 홈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3. 홈쇼핑에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 4. 홈쇼핑에서 옷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 5.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돈을 내요?
- 6.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끔 무엇도 같이 줘요?

4과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28



한스	:	1.	<u> </u>	어때	192
----	---	----	----------	----	-----

미나 :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스: 그래요? 그런데 입어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미나 :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2. 이 가능해요

한스:그렇군요 3 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나 : 아니에요. 아주 4.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29



- 1.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 2.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한스 씨는 요즘 서 가죽 재킷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미나 씨에게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은지 물어봤어요. 미나 씨는 TV 홈쇼핑이 _____서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고 했어요

듣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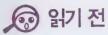
가 해 봅시다.

친구와 자주 이용하는 쇼핑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 써 봅시다.

'해 봅시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써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사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물건을 팔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은 무엇을 파는 가게인 것 같습니까?









4과 읽고말하기



아름다운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까?

이달에 가 볼 만한 곳

아름다운 기계

'아름다운 가게'는 좀 특별한 가게이다.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한테서 가증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쓰지 않는 것을 이 가게에 가증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이런 물건을 모으고 깨끗하게 해서 싼값에 판다.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생긴 돈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압구정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난 이연경 씨(23살, 대학생)는 "이 가게는 값도 싸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김형준 씨(35살, 회사원)는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옷, 책, 신발 등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아름다운 가게에는 직원도 있지만, 아름다운 가게를 도와주는 자원 봉사자들도 있다. 이 가게에서는 자원 봉사자를 천사라고 부르는데, 기증 천사, 활동 천사, 후원 천사가 있다.

기증 천사는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활동 천사는 기증 받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일, 물건을 파는 일 등을 한다. 후원 천사는 가게 장소를 빌려 주거나, 차를 빌려 주는 일을 한다.

요즘에는 '움직이는 가게'도 생겼다. 움직이는 가게는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곳이나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트럭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면 회사나 학교, 아파트 등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뚝섬에서 벼룩시장도 연다. 사람들은 벼룩시장에



활동 천사는 기중 받은 물건을 정리하거나 파는 일을 한다.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친구와 함께, 아니면 가족끼리 아름다운 가게를 방문해 보거나, 자원 봉사를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곳을 다녀오면 마음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조민정기자 imi@sogang.ac.kr

가 맞으면 ○, 틀리면 × 하십시오.

아름다운 가게는 1. 사람들한테 새 물건을 싸게 파는 가게이다. 2. 물건이 다양하고 많긴 하지만 조금 지저분한 편이다. 3. 물건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 4. 아름다운 가게의 직원은 모두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 ()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팔아요?
- 2. 아름다운 가게는 무슨 일을 하는 가게예요?
- 3. 이연경 씨와 김형준 씨는 아름다운 가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 4.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5 움직이는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까?
- 6. 아름다운 가게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_과 읽고말하기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한테서 기증 받은 것이다.
- 2. 움직이는 가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한다.

라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가게	기증 받다	싼값	팔다	어려운 사람	돕다
움직이는 가게	큰 트럭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다	
아름다운 가게	매주 토요일	벼룩시장	직접	팔다	사다

읽기후 😡

가 해 봅시다.

활동1.

여러분이 팔고 싶은 물건을 소개해 보세요.

활동2.

벼룩시장을 열어 보세요.

나 써 봅시다.

어떤 물건을 팔고 싶어요? 광고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구와 가전 제품은 팝니다.

20이치 TV 3년 사용, 각 나옴 - 7만원 작은 책상/의자 깨끗한 편 - 3만원 전자레이지 2년 사용 - 5만원

연간수시: 010-708-8088



문법

1, -더라고요

전자 상가에 가 보세요. 값도 싸고 물건도 다양하더라고요.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별로



팔려요

일시불

별로

2. -게

단어 발음을 들을 수 있게 전자 사전에 음성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쇼핑

TV 홈쇼핑 대형 할인 매장 벼룩시장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가

제품

신제품 전자 제품 면도기

기능

건조 기능 녹음 기능 반복 기능 음성 기능 자동 응답 기능 취침 예약 기능

계산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요. 특별히 찾는 거 있으세요?

막하기

명사

기회 목록 지난번 할부

동사

돌려주다

형용사

적당하다

기타·표현

버튼이 안 눌러지다 빨래를 말리다 소음이 심해지다 작동이 안 되다 전원이 안 들어오다 그럼, 이번 기회에 바꿀까요? 어, 이게 왜 이러지?

듣고 말하기

명사

교환 무이자 바품 벨트 색깔 지불 택배비 품질

동사

구입하다 믿다 입금하다

형용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간단하다

기타·표현 가죽 재킷 신용 카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읽고 말하기

명사

기증 기증 받다 기증하다

이달 주변 트릭

후원 후원 천사

동사

모으다 원하다

기타·표현

싼값에 팔다 어려운 사람 자원 봉사자



물건이 고장 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하기 문법 p84 -아/어 있다 -은가/나 보다

대화 p87 물건 묘사하기 상태 묘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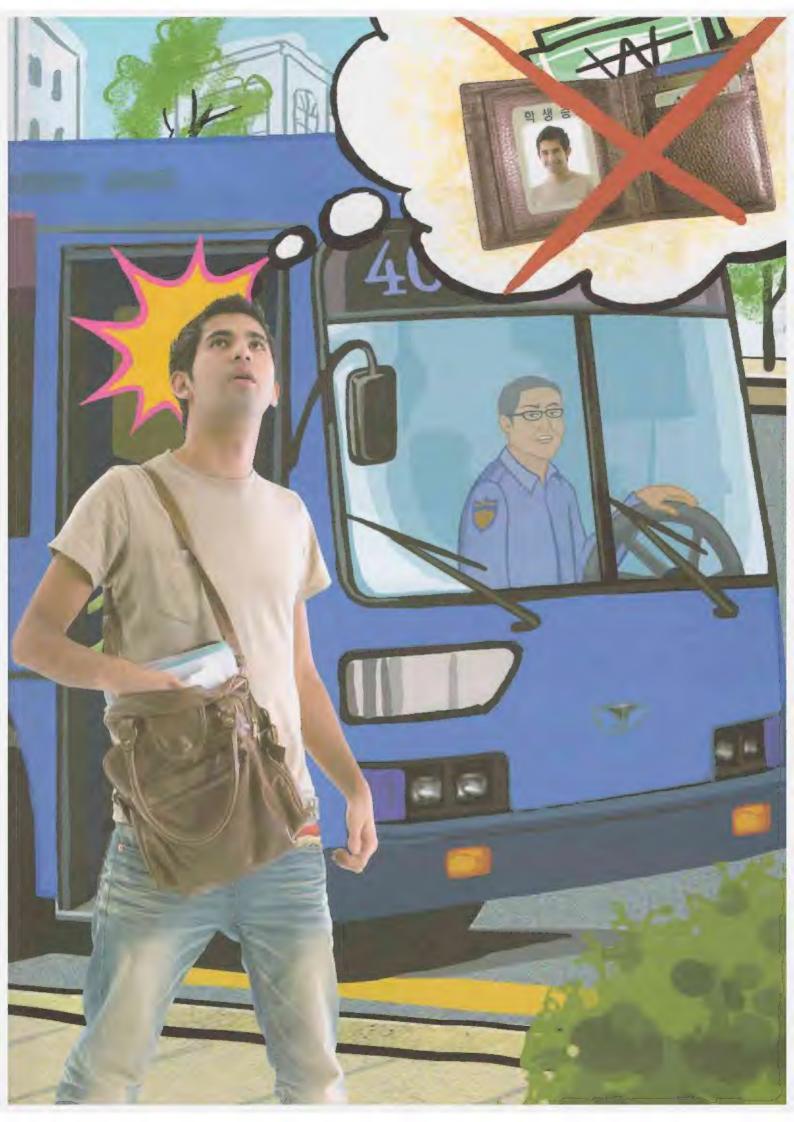
과제 p90 분실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세요

듣고 말하기

p92 금도끼와 은도끼

읽고 말하기

p95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



말하기

-아/어 있다



문법1

가방이 무거워 보여요. 가방에 뭐가 들어 있어요?



문고 대답해 보세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휴대 전화에 뭐가 달려 있어요?

휴대 전화가 꺼져 있어요?

지갑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책의 앞장에 뭐가 쓰여 있어요?

지금 교실 문이 열려 있어요?

▲ 토니 씨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B 제 가방 안에는 책하고 지갑이 들어 있어요. 달라진 점을 찾아 보세요.

윤호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출근할 때와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퇴근 후의 윤호 씨 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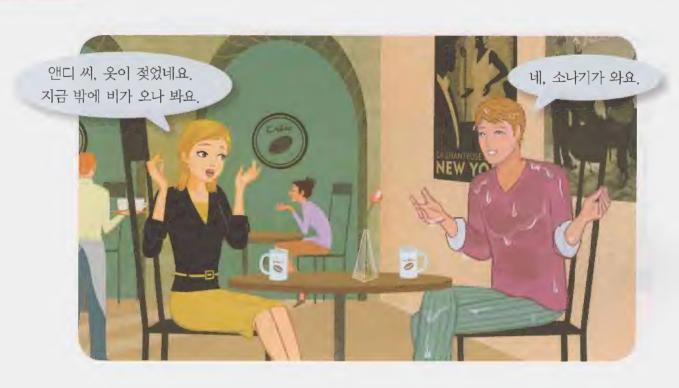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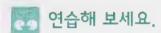
떨어져 있다 깨져 있다 쓰여 있다 (A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 닫혀 있다 (B) 아침에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은가/나 보다



문법2





√ 좋아하다 바쁘다 살았다 없다 어려웠다

- ▲ 유키 씨는 베트남 식당에 자주 가요.
 - B 베트남음식을 좋아하나 봐요 .
- 조 시 한스 씨 집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 ₿ 한스 씨가 집에
- ◎ ▲ 보민 씨가 시험을 못 봤대요.
 - ₿ 시험이 많이
- ▲ 카밀라 씨가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 ₿ 한국에서 오랫동안
- ☑ ▲ 모니카 씨가 요즘 동아리 모임에 자주 안 나와요.
 - B 요즘

카드를 읽고, 추측해서 얘기해 보세요.

_ 씨가 요즘 자주 웃어요.

_ 씨가 주말마다 제주도에 가요.

요즘 _____ 씨가 학교에 안 나와요.

씨가 요즘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가요.

_ 씨하고 ___ 씨가 요즘 말을 안해요.

요즘 앤디 씨가 자주 웃어요.

자주 웃는 것을 보니까 학교생활이 즐거운가 봐요.

자주 웃는 것을 보니까 여자 친구가 생겼나 봐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1



한스 유키 씨, 뭐 찾으세요?

유키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한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어떤 지갑이에요?

유키 갈색 가죽 지갑이에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없어요.

한스 제가 왔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중요한 게 들어 있어요?

위 네, 신분증이 들어 있어서 꼭 찾아야 되는데·····.

한스 그럼, 분실물 센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도서관에서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갈색 가죽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빨간색 수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하철 매표소 앞에서 여권이 들어 있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이용해서 역할극을 해 보세요.

말하기

상태 묘사하기



대화2

물건을 주웠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모니카 어! 지갑이 떨어져 있네요.

역시 한스 씨 지갑 아니에요? 전에 봤는데 비슷한 거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니카 아니에요. 한스 씨 거는 까만색 가죽 지갑이에요.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앤디 어떻게 하죠?

모니카 다른 사람이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는 게 좋겠어요.

애디 네, 그렇게 해요.

지갑 까만색 가죽이다

안경 네모난 은테이다

우산 갈색 체크무늬이다

모자 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휴대 전화 인형이 달려 있다

떨어뜨리다

잃어버리다



교실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역할극을 해보세요.

(이거 미나 씨 수첩 아니에요?

미나 씨 거는 빨간 색이에요.

분실물 센터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세요

준비

뒷건 카드를 보고 묘사하는 연습은 해 보세요.



휴대 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은색이고 곰 인형이 달려 있어요.

활동

- 1. 묵건은 읷어버긴 그룹 A와 분신묵 센터 직원 B로 나누세요. A는 읷어버긴 묵건카드를 받고, B는 주운 묵건카드를 여러 장 받으세요.
- 2. A는 잃어버긴 물건은 묘사하세요. B는 그 물건 카드가 있으면 A에게 주세요.

A



В









서울지도

정리

못 낯은 문건이 있으면 그 문건은 묘사해 보세요.



91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 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연락 드릴게요.

듣고말하기 금도끼와 은도끼



한국의 옛날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콩쥐 팥쥐

해님 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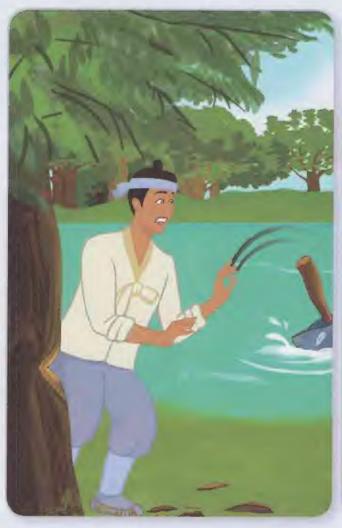
다음은 옛날이야기 '금도끼와 은도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어에 맞는 그림을 찾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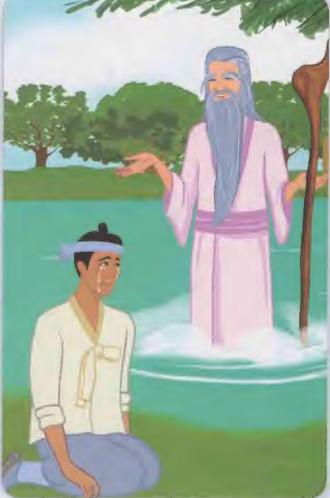
나무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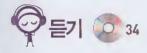
도끼

신령님

연못







● '금도끼와 은도끼'를 듣고 그림의 순서를 찾으십시오.



가 누가 말했는지 ✓ 하십시오.

첫 번째 나무꾼	두 번째 나무꾼	신령님
		V
	첫 번째 나무꾼	첫 번째 나무꾼 두 번째 나무꾼

5과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첫 번째 나무꾼은 어떻게 하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 2. 신령님은 첫 번째 나무꾼에게 무엇을 물어봤어요?
- 3. 신령님은 첫 번째 나무꾼에게 무엇을 줬어요? 왜 그것들을 줬어요?
- 4. 두 번째 나무꾼은 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 5. 두 번째 나무꾼은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 6. 두 번째 나무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35

이렇게 해서 1. 나무꾼은 잃어버린 쇠도끼와 금도끼, 은도끼까지 갖게 되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많은 나무꾼이 이 3. 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쇠도끼를 4 연못에 빠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 36



- 1. 큰일 났네.
- 2.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옛날 옛날에 착한 나무꾼이 연못 옆에서 일을 하다가 . 그때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나서 고 물어봤어요. 나무꾼이 쇠도끼를 잃어버렸다고 대답하니까

신령님은 . 그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도 그 소식을 듣고 . 하지만

신령님은 는 것을 알게 돼서 나무꾼은 병에 걸렸대요

듣기후

가 해 봅시다.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로 연극을 해 보세요

나 써 본시다.

93쪽의 그림을 보고 '금도끼와 은도끼' 이야기를 써 보세요

옛날 옛날에 살한 나무꾼이 이은 하다가 여목에 도끼를 실수로 빠뜨겼어요.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

읽고말하



의기전

어려분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발견한 다음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



क्षित्र स्थान स्थान स्थान

그냥 집에 가져간다.

5과 읽고말하기



● 택시 기사 김윤식 씨는 택시 뒷자리에서 쇼핑백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일보

11월 3일

승객 돈을 돌려준 택시 기사

지난 4일 인천에 사는 택시 기사 김윤식 씨(45, 인천 계산동)는 오후 네 시쯤 한 손님이 내린 후 뒷자리에 쇼핑백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바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운 후 쇼핑백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는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남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돈이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김 씨는 갖고 싶은 마음과 돌려줘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돈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여덟 시쯤 돈을 택시에 두고 내린 이정은 씨(52, 인천 도화동)는 돈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다. 김 씨가 직접 주인인 이 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 씨가 고맙다고

가 맞으면 ○, 틀리면 × 하십시오.

1.	손님이 두고 내린 쇼핑백에는 수표가 많이 들어 있었다.	()
2.	김 씨는 사업 실패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	()
3.	김 씨는 돈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갖다줬다.	()
4.	김 씨는 이 씨가 준 사례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다.	()
5,	이 씨는 사례금을 좋은 일에 사용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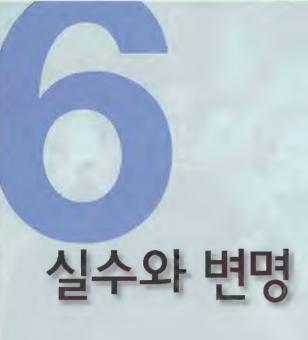
인사를 하니까 김 씨는 돈을 늦게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 씨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줬지만 김 씨는 거절했다. 김 씨가 사례금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한 이 씨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김 씨는 그 돈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너무힘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사례금을 주려고 스무 번 이상 전화를 걸어서 꼭 받아 달라고 했지만 김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돈을 더 좋은 일에 써 달라고 했다.

이 씨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지난 10일, _____기로 했다. 택시 기사 김윤식이라는 이름으로 보냈고, 그 소식을 들은 김 씨도 돈이 좋은 일에 사용돼서 기쁘다고 했다.

이재욱 기자 (jwlee@inchon.com)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김윤식 씨는 택시 뒷자리에 있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 2. 김윤식 씨는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보면서 무슨 고민을 했어요?
- 3. 김윤식 씨는 고민하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 4. 김윤식 씨는 왜 사례금을 거절했어요?
- 5. _____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막습 목표

말하기 문법 p102 -느라고 -은/는 줄 알았다

대화 p104 변명하기 실수 말하기

과제 p106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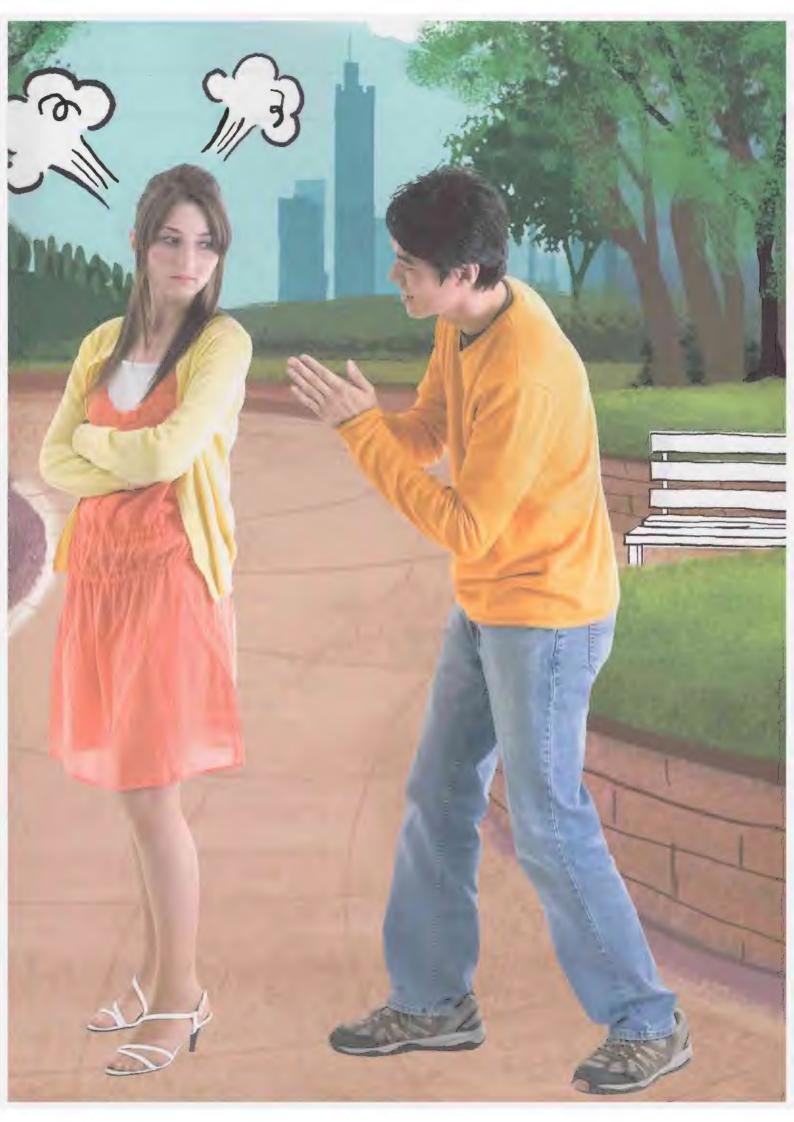
듣고 말하기

p108 지연이는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일고 말하기

p111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느라고



문법1





연습해 보세요.

✓ 하다 놀다 정리하다 듣다 준비하다

- ▲ 이번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요?
 - B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를 못 했어요.
- ☑ ▲ 주말에 잘 쉬었어요'?
 - B 아니요, 발표
 못 쉬었어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요.
- ▲ 어제 숙제 했어요?
 - 이사해서 짐을

숙제를 못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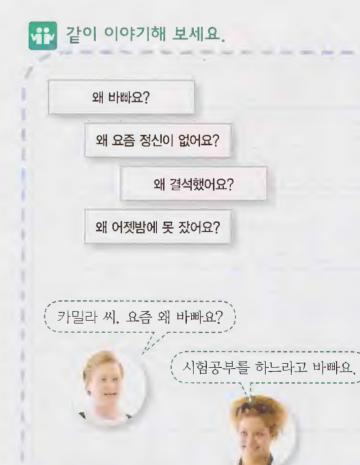
- ☼ ♠ A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 B 밤새 친구들과

잠을 못 잤어요.

- ◎ ▲ 아까 길에서 제가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했어요?
 -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음악을 부르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죄송해요.



말하기

문법2



🦣 연습해 보세요.

- ▲ 결혼했지요?
 - ₿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 ▲ 미안해요 반지를 끼고 있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
- △ 소제를 다 했나 봐요.
 - ₿ 아니요. 아직 못 했어요
 - ▲ 저는 한스 씨가 다른 책을 읽고 있어서 숙제를 다
- ▲ 지훈 씨, 노래 잘 부르세요?
 - B 잘 못 부르는데요.
 - ▲ 저는 지훈 씨가 자꾸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노래를

- 🧻 🛕 어디 아프세요? 왜 약을 드세요?
 - B 이거 비타민이에요.
 - ▲ 그래요? 저는 약을 드셔서 어디가
- ▲ 오늘이 미나 씨 생일이라면서요?
 - 📙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래요.
- ▲ 그래요? 저는 미나 씨가 꽃을 선물 받아서 오늘이
- ◎ ▲ 다음 학기에 등록할 거지요?
 - ₿ 아니요. 한 학기 쉬려고 해요.
 - ▲ 앤디 씨가 다음 학기에도 같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 한국에 대한 생각 중에서 바뀐 것이 있어요?

한국 음식이 아주 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어 보니까 생각보다 안 매웠어요.



한국 음식	교통	한국 사람	
학교	한국어 공부	서울	

말하기

변명하기



대화1

해야 할 일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모니카 청소 왜 안 했어? 오늘 니가 청소하기로 한 날이잖아.

소영 미안해, 오늘 청소 못 했어.

모니카 왜 못 했는데?

소영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못 했어.

모니카 그래? 왜 미리 말 안 했어?

소영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못 했어.

모니카 그럼,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는 니가 해.

소영 알았어, 미안해.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청소하다

걸레질하다

세탁기를 돌리다

쓰레기를 버리다

슈퍼에 갔다 오다

시험 - 공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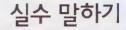
출장 - 짐을 싸다

회의 - 보고서를 쓰다

발표 - 자료를 찾다

세미나 - 발표 준비를 하다

해야 할 일을 못한 이유를 말하고 사과하세요.





약속을 잘못 알았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2





윤호 여보세요? 미나 씨? 왜 아직 안 오세요?

미나 네?

윤호 약속 잊어버렸어요?

미나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윤호 아니에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미나 어! 12시요? 저는 2시인 줄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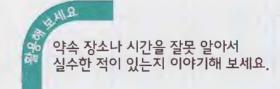
윤호 저는 미나 씨가 약속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미나 제가 요즘 회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약속 시간이 12시인데 2시로 잘못 알았습니다.

약속 날짜가 10일인데 11일로 잘못 알았습니다.

약속 장소가 정문인데 후문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해 보세요

준비

1. 질문 카드를 받으세요.

어제 제 생일 파티에 왜 안 오셨어요?

며칠 전부터 제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왜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2. 진문은 하면 친구가 어떤 대답은 한지 생각해 보세요.

활동

1. 확동지를 받으세요.

질문: 어제 제 생일 파티에 왜 안 오셨어요?

이름

대답

하스 회의하느라고

75/017

2. 친구들은 만나서 직문하고 대답은 메모하세요. 대화는 함때는 다음 순서도 하세요.

1. 인사하기

2. 이유 묻기

3. 변명하기 (-느라고)

4. 듣고 대답하기 (-은/는 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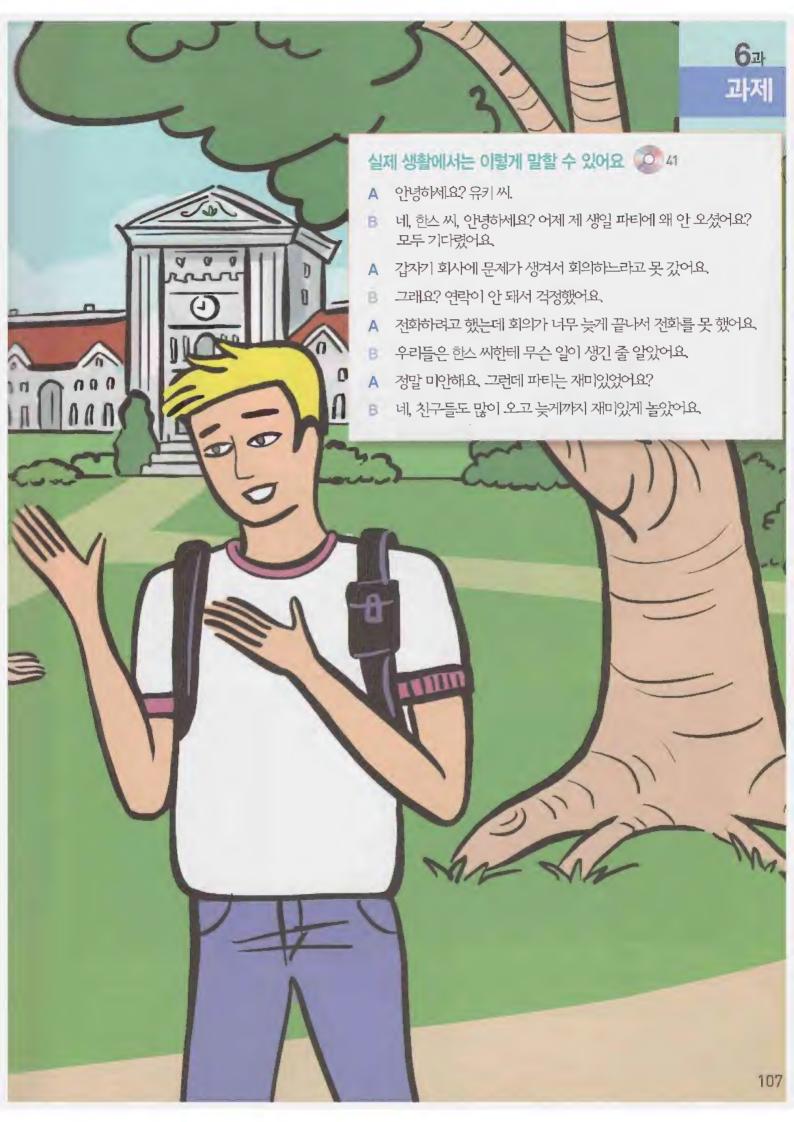
5. 더 이야기하기

정리

재미있는 대답은 방표해 보세요.

한스 씨한테 왜 파티에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회의하느라고 못 왔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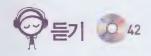
지연이는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친구들 모임에 갈 때 여러분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합니다. 동창회에 아직 안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 동창회에 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연결하십시오.

미나

• 아이를 돌보느라고 정신없다.

지연 •

•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겨서 늦었다.

동준 •

•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늦게 출발했다.

현우 •

→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바쁘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동준 씨는 왜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어요?
- 2, 동준 씨와 미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 3. 현우 씨는 왜 늦게 출발했어요?
- 4. 지연 씨는 왜 정신이 없대요?
- 5. 현우 씨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6과 듣고말하기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 43			
동준 : 그런데 지연이는 왜 안 오지? 전화 왔어?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 44		
미나 : 아니, 안 왔어. 어, 1 메시지가 왔네?	1.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동준 : 지연이가 보낸 거야?	2. 30분이나 지났는데		
마나 : 응.			
동준 : 뭐래?			
미나 : 아이가 아파서 2. 지금 3.			
동준: 그렇구나. 지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일하면서 아이 4	많이 바쁜가 봐.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미나 씨와 동준 씨는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나 씨는서 !			
동준 씨는서 바쁘다고 했어요. 같이 만나기로	로 한 현우 씨는 지금		
했어요. 또 다른 한 명인 지연 씨는고 했어	요. 현우 씨가 오지 않아서 전화해 보니까		

가 해 봅시다.

듣기후 🖗

5년 후에 반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합니다. 동창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나 써 봅시다.

동창 모임을 한 날의 일기를 써 보세요.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의기 전

한국어를 잘 못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6과 읽고말하기

의기

● 렌핑, 유키, 투안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렌핑인데 한국에서 산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행에 갔다가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은행에 처음 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버스로 왔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귀엽게 생겨서 웃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3급에서 은행 대화를 배울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설명을 듣고 실수를 깨달았을 때 경비 아저씨가 웃은 것처럼 저도 혼자서 웃었습니다.



렌핑



유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긴 했지만 아직 못 알아듣는 것이 많아서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놀라서 "미안해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투안

저는 한국에 온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입에 잘 맛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히 파나 마늘 같이 냄새가 강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3급에서 "돼지고기 빼고 다 잘 먹어요."라는 표현을 배웠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배탈이 나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에 갔을 때 순두부찌개를 시키면서 자신 있게 "파 빼고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찌개에 '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왜 파가 있어요? 그리고 밥은 왜 안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응? 밥이 아니고 파야? 나는 밥을 빼 달라는 줄 알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할 수 없이 파가 들어 있는 순두부찌개를 먹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가 읽고 간단하게 메모하십시오.

	실수한 말	맞는 말
렌핑	버스로 왔는데요.	
유키		
투안		

6과 읽고말하기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어떻게 오셨습니까?"는 무슨 뜻이에요?
- 2. 렌핑 씨는 왜 경비 아저씨가 웃는다고 생각했어요?
- 3. 유키 씨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 4. 아주머니는 유키 씨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 5. 투안 씨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 6. 식당 아주머니는 왜 밥을 안 줬어요?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제가 실수한 것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 2. 나는 밥을 빼 달라는 줄 알았지.

라 p.111의 그림을 보고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읽기후 😡

가 해 봅시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나 써봅시다.

언어 때문에 실수한 경험에 대해서 써 보세요.



문법

1 - 느라고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하느라고 청소를 못 했어요.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 46



듣느라고 [든느라고] 달려 있는

늦는다고

2. -은/는 줄 알았다

어! 12시요? 저는 약속 시간이 2시인 줄 알았어요.



변명과 실수

변명하다 사과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말을 못 했어. 무슨일이생긴줄알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말하기

명사 날

청소하기로 한 날

발표

보고서

세미나

자료

짐

짐을 싸다

후문

동사

걸레질하다

기타·표현

세탁기를 돌리다 정신이 없다

듣고 말하기

명사

동창

동창회

환자

동사

돌보다

키우다

부사

갑자기

기타·표현

문자 메시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읽고 말하기

명사

상황

동사

깨닫다

두리번거리다

웃다

형용사

귀엽다

부끄럽다

부사

억지로

종종 하참

기타·표현

어느 날

음식이 남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고 사과할 수 있어요.

○ 한국어 때문에 실수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법 p118 - 있/었던 - 던 - 고 나서

대화 p121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추억 말하기

과제 p123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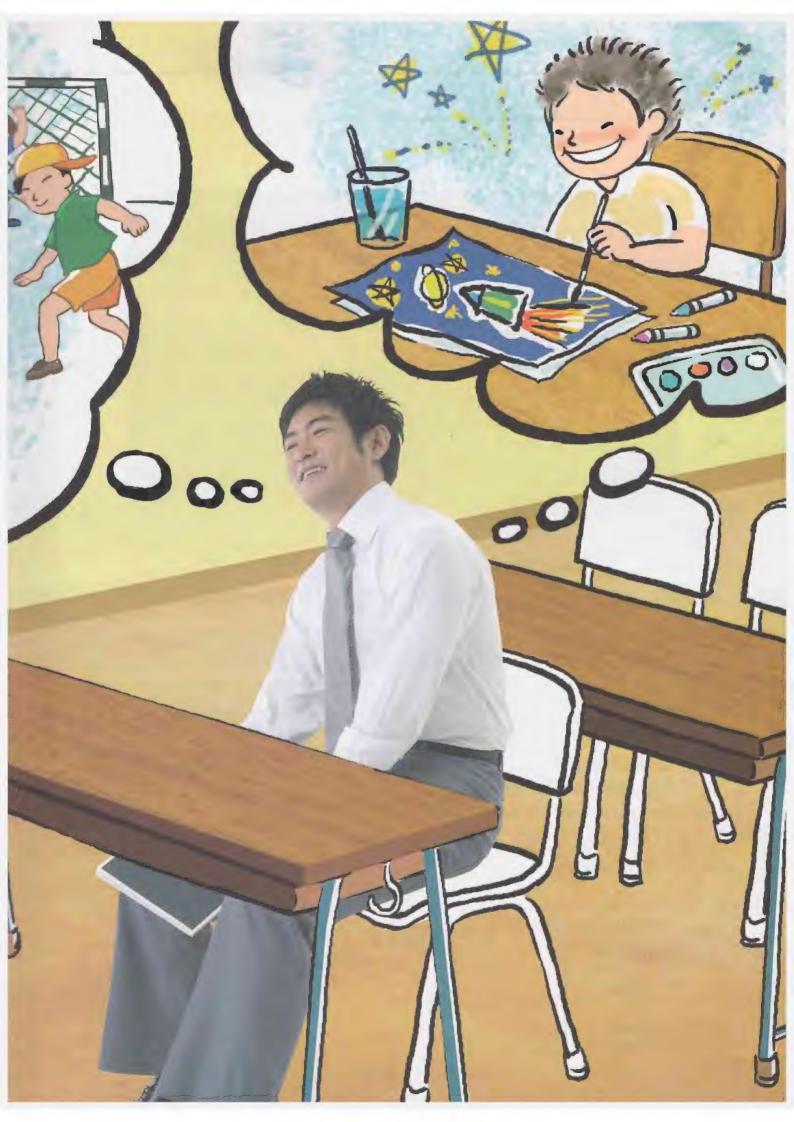
듣고 말하기

p124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일고 말하기

p127 나의 대학 시절





- 았/었던



문법1



💹 연습해 보세요.

- ★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 B 지난번 파티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 ◎ ▲ 이 근처에 괜찮은 미용실이 있다고 했지요?
 - B 네, 제가 한 달 전에 파마를 곳인데, 아주 좋아요. 한번 가 보세요.
- A 옷새로 샀어요?
 - 🖪 아니요, 친구 결혼식 때 한 번

옷이에요.

- - 용 제가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 제일 맛있었어요.
- ◎ A 한국 노래 CD 하나 추천해 주세요.
 - B 이건 제가 지난 봄에 여행 갈 때 노래 CD인데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viiv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행 갔던 곳 중에서 다시 가 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작년 휴가 때 여행 가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입에 맞았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집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행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태국이었어요.

왜요?

문법2



문고 대답해 보세요.

✓ 가다 다니다 살다 입다 듣다

- ↑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자주 가던 곳이 어디예요? B 떡볶이 가게요.
- ☑ ▲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 📙 아니요. 전에 집에서 찍은 거예요
- ▲ 가은 씨는 언니가 있지요?
 - ₿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새 옷을 못 입고 언니가 옷을 입었어요.
- ▲ 어렸을 때 학교에 다시 가 본 적이 있어요?
 - B 네. 가 봤는데 책상과 의자들이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 ▲ 고등학생 때 자주 음악이 뭐예요?
 - B 댄스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학생 때 |

자주 가던 곳이 어디예요?

자주 먹던 음식이 뭐예요?

같이 놀던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자주 부르던 노래를 불러 보세요

학생 때 제가 자주 가던 곳은 학교 앞에 있는 영화관이었어요.





문법3



연습해 보세요.

- ▲ 지금 운동할까요?
 - B 아니요, 커피 마시고 나서 운동합시다. 커피마시다
- ▲ 언제 퇴근할 거예요?
 - B 서류를 보내다

퇴근하려고 해요.

- ▲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요.
 - B 그래요?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담배를 끊다

- ▲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 B 죄송하지만,

질문해 주세요.

설명을 다 듣다

- A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 B 아직 잘 모르겠어요.

2주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VIIV

카드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수업이 끝나다

한국어를 배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저녁을 먹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했어요?

친구 만나러 커피숍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인사하기

오랜만에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1



모니카 앤디 씨? 혹시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던 앤디 씨 아니에요?

앤디 맞긴 한데……. 아, 모니카 씨! 이게 얼마 만이에요?

모니카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웬일이세요?

앤디 이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 그런데 모니카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모니카 국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일해요. 교수가 됐어요.

앤디 야! 꿈을 이루셨네요.

모니카 반가운데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국제 대학원을 졸업하다 다학교 교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다 어머니는 제사장

한국 요리를 배우다 한국 식당 요리사

방송 아카데미를 수료하다 방송국 PD

10년 후에 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인사하고 요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추억 말하기



대화2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추억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앤디 모니카 씨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모니카 앤디 씨도 그래요.

앤디 모니카 씨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요.

🖳 卦 앤디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앤디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이 제일 생각나요.

모니카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참! 앤디 씨, 같이 연극을 했던

한스 씨하고 지금도 연락하세요?

앤디 아니요, 못 만난 지 꽤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한번 만나 보고 싶어요.

같이 공부하던 옛 동창과 졸업식에서 연극을 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옛 동료와 해외 연수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숙집에 살던 친구와 여름에 바다로 여행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10년 후에 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 학교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준비

1. 항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 인기 있던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옷, 머리 모양, 신발, 양말, 노래, 가방, 춤, 문구류 등



가수, 배우, 영화, 간식, 운동, 물건, 식당, 가게 등

2.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세요.

활동

- 1. 소그룹 확동이 끝난 후 재미있었던 내용은 정기해서 방표 준비를 하세요.
- 2. 방표는 방송 토크 쇼케검 진행 하세요.

정리

어떤 수억 이야기가 제이 재미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내 보세요.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49



진행자 :지금부터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키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옷이 유행했습니까?

: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청바지를 길게 입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 그럼, 유키 씨도 긴 청바지를 입으셨어요? B

: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입던 청바지도 아주 길었기 때문에 제 구두는 언제나 높았어요.

: 그럼, 걸어 다닐 때 힘들었겠어요.

: 네, 처음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걸었을 때는 A 정말 힘들었어요.

: 그렇게 힘든데 꼭 긴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던 이유가 있어요?

: 글쎄요, 그때는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날씬해 보였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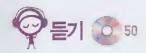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다음은 언제 유행하던 것입니까?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2000년대





가은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이야기합니다.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고르십시오.



가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하십시오.

	OFAR	엄마
1.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2.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3. 축제가 기억에 남아요.		
4. 데모를 했어요.		
5. 친구나 선배들과 밤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엄마는 왜 가은이에게 새로 산 옷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 2. 엄마는 대학생 때 왜 짧은 치마를 입으셨어요?
- 3. 가은이는 왜 아빠의 사진을 보고 웃었어요?
- 4. 엄마와 아빠는 대학생 때 만나면 무엇을 하셨어요?
- 5. 엄마와 아빠는 대학교 생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7과 듣고말하기

	51			
엄마 :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한 가은 : 데모요?	하면 데모가 제일 먼지	저 생각이 나.		
엄마 : 어, 그때는 1 가은 :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때문에 대학생들	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엄마: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가은: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친구들과 3 <u></u>	이야기도 많이 했지.	
		라 잘 듣고 따라하십	J시오. ② 52	
			꾸는 게 좋지 않겠니? 신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엄마와 아빠가 대학교에 다닐	때는	가 유행이었다	나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는데 그때어	는 특별히 갈 곳이 음	없으니까	. 대학교 때 를	
생각하면 아빠는	고 하시고 엄	마는	고 하세요.	
	고 하시고 엄	마는	고 <mark>하세요.</mark>	
생각하면 아빠는	고 하시고 엄	마는	고 하세요.	
	고 하시고 엄	마는	고 <mark>하세요.</mark>	
	고 하시고 엄·	마는	고 <mark>하세요.</mark>	
들기후 🖗		다는	고 <mark>하세요.</mark>	
두기 후 < <p>가 해봅시다.</p>	3.		교 하세요. 대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는기 후 (조) 가 해봅시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3. +면 뭐가 제일 생각	나요?) (고등학교		
는기 후 ② 가 해봅시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 중학교 때를 생각하	3. +면 뭐가 제일 생각	나요?) (고등학교	.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	
는기 후 ② 가 해봅시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 중학교 때를 생각하	3. +면 뭐가 제일 생각	나요?) (고등학교	.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써 보세요.

🔊 읽기전

신해철 씨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신해철 씨의 대학 시절에 대해서 추측해 보십시오.

	대학 생활	음악 활동		
전공	① 철학 ② 음악	상	상을 받았던 때는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	
수업	① 열심히 수업에 들어갔다 ②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지금 음악 활동에 대해서 ① 반대하신다 ② 응원해 주신다	
시험	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았다 ②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을 못 받았다	학교 공부	음악 활동을 하느라	
추억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은 ① 좋은 추억이다 ② 힘들었던 추억이다	박ᡅ 증구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다 ②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뒀다	

7과 읽고말하기



10

15

20

● 신해철 씨는 대학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나의 대학 시절



신해철(철학과 87학번)

나는 1987년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때 철학에 대한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철학 공부와 대학교에서의 공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수업이 재미없어진 나는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만화 가게에서 살았다.

그러나 철학 공부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한번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 적도 있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후배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쓰러졌던 기억이 있다. "형. 시험 왜 봤어요? 결석 많이 해서 벌써 FA 받았는데……" (FA: 3학점짜리 강의를 한 학기에 7번 결석하면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을 받는 제도)

대학 시절에 나는 수업도 열심히 듣지 않고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납는 일도 많다.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때는 대학생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나도 빈 강의실에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이다.

무엇보다도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학교 2학년 때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내가 음악 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아버지 몰래 기타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노래를 만들던 일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음악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와서 음악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왜 음악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결론은 음악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아버지와 화해했고 아버지는 항상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신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음악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했다. 보통 학생들보다 네 학기를 더 다녔지만 졸업하기 전에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졸업장은 없다. 하지만 나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원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라고 후배들에게도 말해 주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가 p.127에서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신해철 씨는 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 2. 시험 때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어요?
- 3. 신해철 씨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생들이 무엇을 많이 했어요?
- 4. 아버지는 신해철 씨가 MBC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 5. 신해철 씨는 집을 나와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 6. 신해철 씨는 후배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내가 생각했던 철학 공부와 대학교에서의 공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2. 음악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왜 음악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7과

라 다음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Ⅰ 신해철 씨는 Ⅱ











읽기후 😡

가 해봅시다.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좋아했어요?) (결석이나 지각을 많이 했어요?

(시험 때 있었던 일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아요?) (무슨 동아리에서 활동했어요?



나 써봅시다.

학생 시절 추억에 대해서 글을 써 보세요.



문법

1 - 았/었던

지난번 파티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2, - 던

학교에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 어디예요?

3. -고 나서

어제 식사하고 나서 영화 봤어요.

발음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 53

볼일 [볼릴]

서울역

스물 여덟

단어 표현

학생 시절 추억

강의

성적

성적을 잘 받다

수료하다

(-에) 입학하다

졸업장

캠퍼스

학번

말하기

명사

관심

떡볶이

문구류

미용실

방청객

시절

유행

(-이/가) 유행하다

주제

지사장

출연자

동사

진행하다

기타·표현

국제 대학원 꿈을 이루다

방송 아카데미

볼일이 있다

해외 연수

맞긴 한데…….

이게 얼마 만이에요?

듣고 말하기

명사

너희

데모

막걸리

동사

돌아다니다

기타·표현

머리를 기르다

사회 문제

그렇죠?

읽고 말하기

명사

결론

대상

대상을 받다

이불

이불을 뒤집어쓰다

제도

철학

후회

후회하다

동사

(-과/와) 다투다

반대하다

(-이/가) 비다

빈 강의실

(-이/가) 쓰러지다

응원하다

(-에 대해서) 토론하다

(-과/와) 화해하다

형용사

관계없다

부사

몰래

기타·표현

무엇보다도

소홀히 하다

말할 수 있어요

]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학생 시절에 유행하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IN EO

말하기 문법 p134 - 있/었으면 - 있/었을 텐데

대화 p136 아쉬운 점 말하기 계획 말하기

과제 p138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보세요

듣고 말하기

p140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읽고 말하기

p143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 았/었으면 - 았/었을 텐데



문법1



🧑 연습해 보세요.

- A 어제 환송회에 왜 안 오셨어요?
 - B 회사 일이 많아서 못 갔어요.
 - ▲ 많이 기다렸는데…….
 - B 일을 빨리 끝냈으면 환송회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 ▲ 숙제 다 했어요?
 - B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숙제를 다 못 했어요.
 - ▲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화를 낼지도 몰라요.
 - B 텔레비전을 안 봤으면

너무 후회돼요.

- ▲ 어제 소풍 못 갔다면서요?
 - B 네,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어요.
 - ▲ 아쉬웠겠어요.
 - B 네,

너무 아쉬워요.

- A 시험 잘 보셨어요?
 - ₿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 ▲ 걱정되시겠어요.
 - B 네.

너무 후회돼요.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일이 있어요?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더 건강해졌을 텐데…….

지금부터 하면 되지요, 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을까 하다

문법2



묻고 대답해 보세요.

- ▲ 이번 방학(휴가) 때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 B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여행을 갈까 해요 .
- ② ▲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 🖥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향에 돌아가다

- A 점심 때 뭐 먹을 거예요?
 - B 글쎄요,

김밥을 먹다

- △ A 저녁 먹고 나서 뭐 할 거예요?
 - ₿ 글쎄요. 춥지 않으면 공원에 가서 좀

걷다

- ☼ ⑥ ▲ 결혼하면 어디에서 사실 거예요?
 - ₿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살다

미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한국어를 배우실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좀 쉴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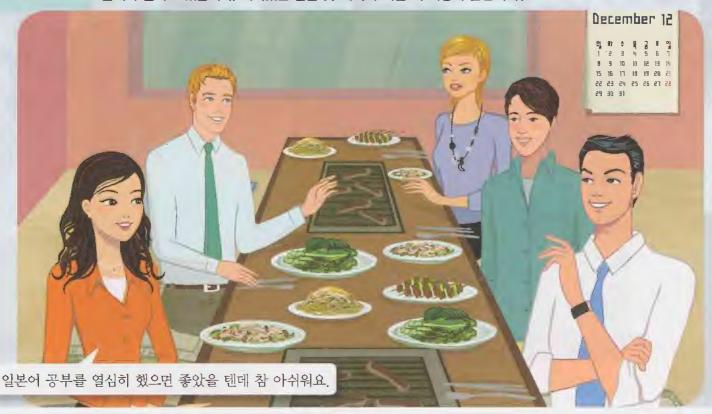
말하기

아쉬운 점 말하기



대화1

올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을 못 해서 후회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미나 벌써 12월이네요.

상우 네. 올해도 다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미나 저는 올해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상우 미나 씨는 올해 회사 일 하느라고 바빴잖아요. 일본어 공부는 내년에 하면 되지요, 뭐.

미나 네,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다음을 이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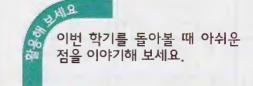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따려고 했는데 못 땄습니다.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했는데 못 배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대화2

말하기



유키 그동안 고마웠어요. 모니카 씨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모니키 무슨 말씀을요. 유키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유키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하실 거예요?

모니카 복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유키 씨는요?

유키 저는 고향에 잠깐 갔다 올까 해요.

모니카 우리 못 만나도 잊지 말고 자주 연락해요.

복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하던 일을 계속하다

논문을 완성하다

대학원에 진학하다

한국 음식점을 차리다

고향에 잠깐 갔다 오다

그동안 못 만난 친구들을 만나 보다

자원 봉사를 해 보다

일자리를 알아보다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다

이번 학기 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과제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 보세요

준비

- 1. 텍테비전에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은 보세요. (예: 한밤의 TV연예, 연예가 중계) 리포터가 인터뷰를 어떻게 시작돼요? 분위기가 어때요?
- 2. 여러분이 방송사 기포터가 됩니다. 주제를 보고 어떻게 질문할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 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

활동

- 1. 방송 기포터워검 상대방이 대답은 잔함 수 있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세요.
- 2. 인터뷰은 하면서 대답은 메모하세요.

한국 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

이름	대답
모니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카미글라	한국 친구가 별로 없어요.

3. 인터뷰가 끝난 후 가장 많이 나오거나 재미있는 대당으로 Best 3 5표는 만들어서 방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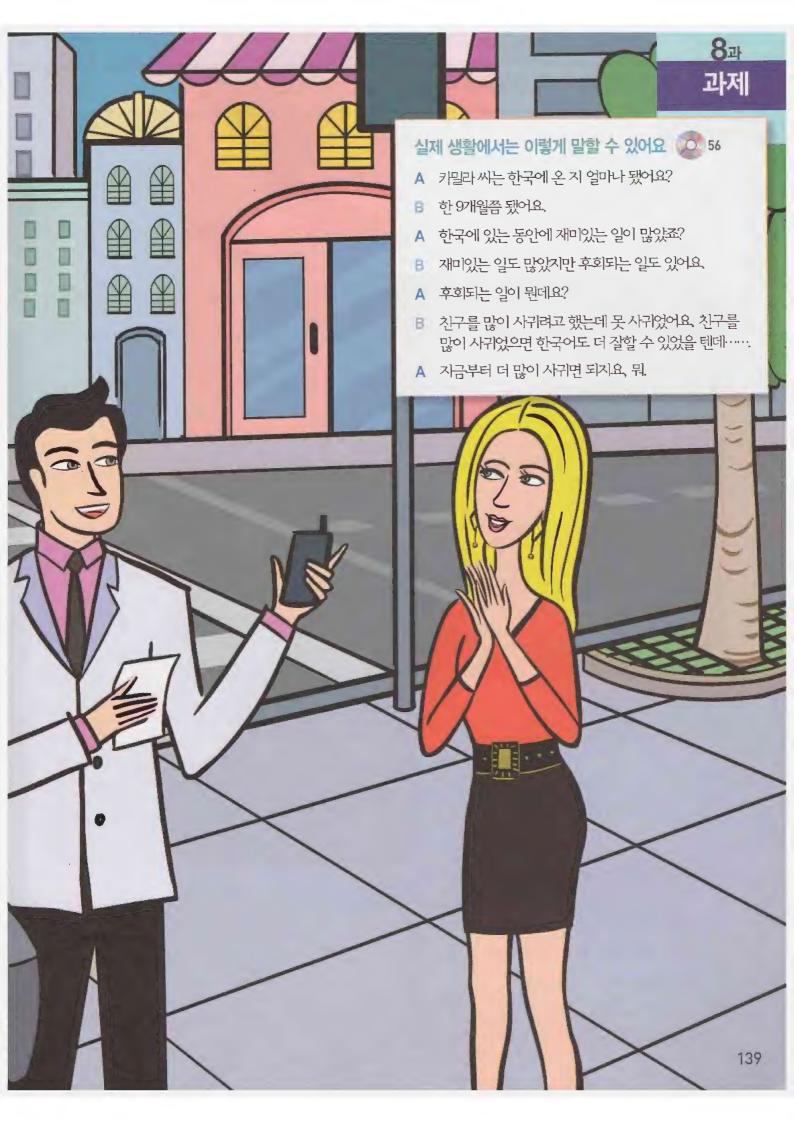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

이름	-	대답	

가장많이 나온 대답 1.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다. 2.

정리

발표 중에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이야기나 보세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여러분의 올해 / 내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면 꼭 실천하는 편입니까?

계획을 세우면 끝까지 꼭 실천한다.	
계획은 세우지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곤 한다.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한스 씨와 카밀라 씨가 한강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한스 씨에게는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카밀라 씨에게는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가 맞으면 ○, 틀리면 × 하십시오.

1.	한스 씨는 운동한 지 얼마 안 됐다.	()
2.	카밀라 씨는 작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
3.	한스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	()
4.	카밀라 씨는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5.	한스 씨는 카밀라 씨가 마라톤 대회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한스 씨와 카밀라 씨는 아침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 2. 한스 씨는 운동을 하는 동안 뭐가 힘들었대요?
- 3. 카밀라 씨는 계획을 세우면 잘 실천하는 편이에요?
- 4. 한스 씨는 올해 무슨 계획이 있어요?
- 5. 한스 씨는 카밀라 씨가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6. 카밀라 씨가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8과 듣고말하기

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2 58

한스 :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카밀라 : 그래도 1년이나 하셨잖아요.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항상 계획만 세우고

1. 은 잘 못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한스 :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2._____ 하면 되죠, 뭐.

카밀라 : 그럴까요? 이번에는 3._____이 되지 않게 4.__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 59

- 1.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 2.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마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카밀라 씨의 올해 계획은	그런데	카밀라	씨는	계획을 잘	세우지만
. 한스 씨는 운동한 지 1년쯤	됐는데,	올해 겨	회은		
카밀라 씨도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어하지만 한길	느 씨는				

들기후 👰

가 해 봅시다.

친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많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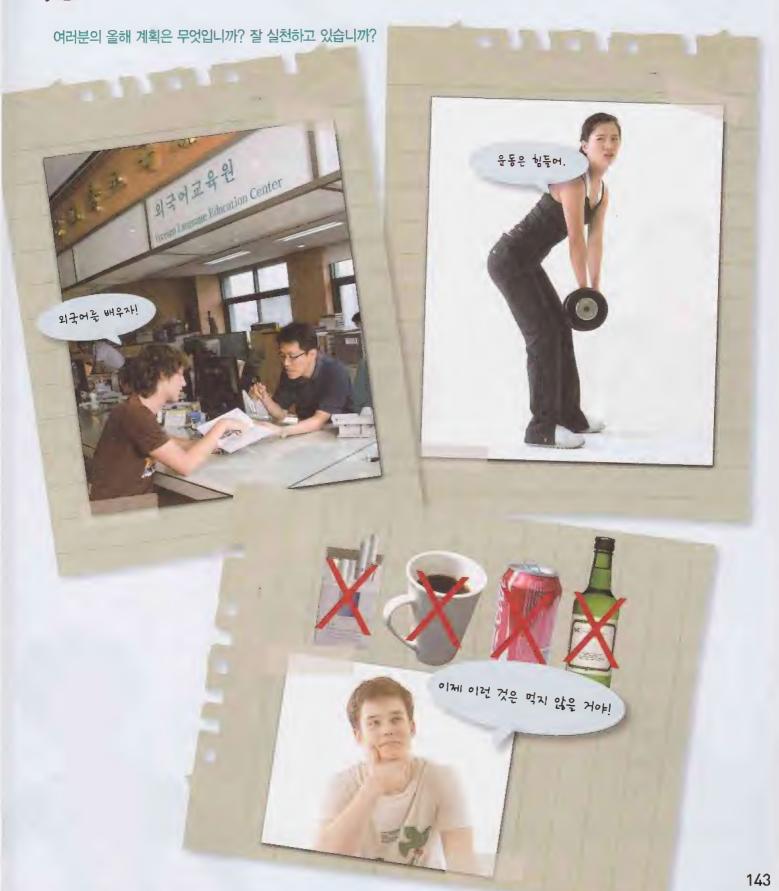
나 써 봅시다.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써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 읽기 전



8과 |고말하기



보민

● 보민 씨, 카밀라 씨, 한스 씨는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대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고등학교 때는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거의 매일 동아리 방이나 과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다. 1학기 성적표가 나왔을 때 나도 놀랐고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도 작심삼일로 끝났다.

내 꿈은 신문 기자가 되는 것인데, 선배하고 얘기해 보니까 신문사에 들어가려면 학점도 좋아야 하고 취직 시험 준비도 미리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학점을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2학년이 되면 전공과목을 들어야 하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다.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생기면서 한국 사람, 한국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도 좋은 추억이다. 몇 개월 후에 헤어지게 되긴 했지만……

남자 친구와 행복하게 지낼 때는 데이트하느라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소홀히 대했다. 그렇지만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 주었다. 참 고마웠고 남자 친구를 사귀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됐다.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올해는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다시 한 번 오고 싶었던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새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도 했다. 또 한국에 와서 옛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도 좋았다.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 경주에서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한 것도 좋은 추억이다. 앞으로도 직장 생활과 한국어 공부, 취미 활동을 다 잘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O 60

가 읽고 메모하십시오.

한스

	후회하는 일	계획
보민	공부를 소홀히 했다	
카밀라		
한스		

됐으면 좋겠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1. 보민 씨는 고등학생 때 왜 힘들었어요?
- 2. 보민 씨는 대학교 1학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 3. 카밀라 씨는 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소홀히 대했어요?
- 4. 카밀라 씨는 올해를 어떻게 보냈어요?
- 5. 올해 한스 씨한테 어떤 일이 있었어요?
- 6. 요즘 한스 씨의 한국어 실력은 어때요?

8과 읽고말하기

다 소리 내서 읽어 보십시오.

- 1.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 주었다.
- 2. 1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국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

라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보민	놀다	공부	소홀히 하다	후회되다	
카밀라	남자 친구	사귀다	주변 사람들	소홀히 대하다	후회하다
한스	직장	인정받다	승진하다	한국어 실력	하프 마라톤 대회

읽기후 😡

가 해 봅시다.

요즘 생활에서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나 써봅시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후회되는 일이나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 써 보세요.





1, -았/었으면 -았/었을 텐데 어제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잘 봤을 텐데 후회돼요.



잘 듣고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61 후회 [후회] 해외 취직

2. -을까 하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고향에 잠깐 갔다 올까 해요.



후회와 계획

작심삼일 그만 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말하기

명사 논문 세월 악기 일자리

동사

돌아보다 (-에) 복학하다 완성하다 (-에) 진학하다

부사 오히려

기타·표현 운전 면허증을 따다 음식점을 차리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을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듣고 말하기

상 티켓 **동사** 노력하다

뛰다

명사

실천하다 (-이/가) 열리다 대회가 열리다

형용사 게으르다

기타·표현 1등 작년 초

읽고 말하기

명사 건강 관리 성적표 실력 실력이 늘다 실망 실망을 하다 주위 주위 사람 최고 최고의 해

동사

(-과/와) 어울리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형용사 소중하다

기타·표현 한 해 소홀히 대하다

말할수
있어요

후회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Listening 특기 대본 Script

1

CCD 5

일기 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3도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아타우가 내일 오후쯤 동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호 : 조금 전에 일기 예보를 들었는데 내일 동해안에 태풍이 온대요.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하지요?

미나 : 한스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한스 씨는 태풍이 와도 가고 싶대요. 윤호 씨 생각은 어때요?

윤호 :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나 :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 예보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날씨가 좋을지도 모르잖아요.

윤호 : 태풍에 관한 일기 예보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맞았어요.

미나 : 태풍은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방 안에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죠. 뭐

윤호 : 시간하고 돈을 들여서 여행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 한번 못 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미나 : 여행을 안 가면 기차표도 취소해야 되고 민박 집 예약도 취소해야 해요.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요.

윤호 : 글쎄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미나 : 그럼, 윤호 씨는 집에서 쉬세요. 저하고 한스 씨하고 둘이서 갈게요.

윤호 : 네? 한스 씨하고 둘이서요?

미나 : 네, 둘이서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1

윤호 : 그럼, 그냥 같이 가요.

2············p 41

복날이 뭐예요?

상우: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한스 씨. 같이 식사하러 갑시다.

한스 : 네, 좋습니다.

상우 : 한스 씨, 뭐 드실래요?

한스: 글쎄요. 아, 저기 사람들이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상우: 거긴 삼계탕 집인데 오늘이 복날이어서 그래요.

한스 : 복날이 뭐예요?

상우 : 초복, 중복, 말복을 복날이라고 해요. 한스 : 처음 들어 봐요.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우 : 초복은 1년 중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고 말복은 더위가 끝나는 날이에요. 중복은 초복하고 말복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초복이에요.

한스 : 복날에는 보통 삼계탕을 먹어요?

상우: 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힘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삼계탕에는 몸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힘이 생겨요.

한스: 아, 그렇군요, 더운 날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 참 재미있어요.

상우 : 그럼, 한스 씨, 오늘 삼계탕 먹을래요?

한스: 네, 좋아요. 저도 요즘 힘이 없었어요. 하하!

상우: 그런데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한스 : 네, 이야기 좀 하면서 기다리지요, 뭐, 상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상우: 저는 국물이 있는 음식은 다 좋아해요. 그래서 탕 종류는 다 좋아해요

한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갈비탕이에요.

상우: 한스 씨,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직원 : 저, 손님 죄송한데요. 오늘 닭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에 와

Tall Col. Cal Method

주세요.

한스, 상우: 네? 뭐라고요?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약사 :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 : 소화제 좀 주세요. 약사 : 뭐 잘못 드셨어요?

지훈 : 특별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속이 불편해요.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해요.

약사: 그러세요?

악사 : 그러세요? 지훈 : 네, 그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있고 두통도 심해요.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어요.

약사: 그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더 좇을 것 같은데요.

지훈: 병원이요?

약사 : 네, 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편한 것 같아요. 지훈: 그래요? 그럼, 실례지만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약사 : 네, 나가서 오른쪽으로 30m만 걸어가면 내과가 있으니까 한번 가 보세요.

지훈: 아, 네, 지금 가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약사 : 아, 다시 오셨네요.

지훈 : 네.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래요.

약사: 아이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겠어요. 지훈: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죠, 뭐. 여기 처방전이요.

약사 :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약사: 김지훈 씨, 약 나왔습니다.

지훈 : 네.

약사: 3일치인데 하루에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음식도 기름기가 많거나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말고 부드러운

것만 드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음식 조심하시면 금방 나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스: 미나 씨, 지금 바쁘세요?

미나: 아니요

한스 :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미나 : 네, 뭔데요?

한스: 날씨가 쌀쌀해져서 가죽 재킷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싸고 좋은

데 없을까요?

미나 :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 보는 게 어때요? 거기가 물건이 싸고

다양하더라고요.

한스: 저도 동대문 시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고르기가 더 힘들던데요.

미나 : 그럼, TV 홈쇼핑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가죽 재킷 파는 걸 봤어요.

한스: 저도 봤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나 씨는 TV 홈쇼핑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미나 : 네, 가격도 비싸지 않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방하고 옷을 샀어요.

한스 : 품질은 어때요?

미나 : 보통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에요.

한스: 그래요? 그런데 입어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미나 :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언제든지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해요.

한스: 그렇군요.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나 :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화해서 직원한테 사려고 하는 옷하고 사이즈. 그리고

색깔을 말하면 돼요.

한스: 그럼, 돈은 어떻게 내요?

미나 : 신용 카드로 내도 되고 은행에 가서 입금해도 돼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무이장 할부가 되니까 잘 알아보세요.

한스 : 배달도 해 줘요?

미나 : 물론이죠.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고 택배비도 없어요.

아, 참! 가끔 벨트나 지갑 같은 사은품을 줄 때도 있어요.

이 지갑도 지난번에 가방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한스: 좋네요. 저도 오늘 TV 홈쇼핑을 봐야겠어요.

p 93

CD 34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옛날에 어느 산속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연못 옆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도끼를 빠뜨렸네. 큰일 났네"

그때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느냐?"

"예. 저는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 도끼를 다시 찾아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어휴! 정말 고맙습니다. 신령님."

연못 속으로 들어간 신령님은 조금 후에 다시 나왔어요

"얘야,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도끼냐?"

"아니, 그것은 금도끼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신령님,"

"그래? 그림,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럼,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도끼냐?"

"아니, 그것은 은도끼가 아닙니까? 그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신령님. 제가 잃어버린 것은 쇠도끼입니다."

"오! 허허허! 너는 참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자, 네가 잃어버린 쇠도끼와 함께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에게 줄 테니까 갖고 가라."

"어휴! 고맙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직한 나무꾼은 잃어버린 쇠도끼와 금도끼, 은도끼까지 갖게 되었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쇠도끼를 일부러 연못에 빠뜨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엉엉."

그때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왜 여기에서 울고 있느냐?"

"예, 저는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조금 후에 신령님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얘야, 이것이 네가 잃어버린 도끼냐?"

"예, 바로 그 금도끼가 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도끼도 제 것입니다."

"에잇! 나쁘구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이고! 신령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쇠도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령님께 거짓말을 해서 병에 걸렸대요.



p 109 CD 42

지연이는 아이 키우느라고

미나 : 어 동준아 왔어?

많이 바쁜가 봐

동준 : 어, 좀 늦었지? 갑자기 학교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

미나 :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바쁘다면서?

동준 : 응,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서 조금 바빠. 너는

어떻게 지내?

미나 : 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요즘 조금 바빠.

동준 : 너도 바쁘구나, 그런데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미나 : 응, 아직 안 왔어. 길이 많이 막히나 봐.

동준 : 오랜만에 모이는데 친구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

미나: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전화벨 소리〉

미나 : 어, 현우구나, 왜 아직 안 와?

현우: 미나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급한 환자가 있어서 치료하느라고

늦게 출발했어.

미나: 그럼, 언제 도착해?

현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한 20분쯤 걸릴 것 같아.

미나: 그래? 알았어.

동준: 현우가 왜 전화했어? 못 온대?

미나: 아니,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래.

동준: 그래? 그런데 지연이는 왜 안 오지? 전화 왔어?

미나 : 아니, 안 왔어, 어, 문자 메시지가 왔네?

동준: 지연이가 보낸 거야?

미나 : 응.

동준 : 뭐래?

미나 : 아이가 아파서 돌보느라고 지금 정신없대. 오늘 못 온대.

동준 : 그렇구나, 지연이는 결혼하고 나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고

많이 바쁜가 봐

〈잠시 후〉

동준: 그런데 왜 현우가 안 오지? 30분이나 지났는데…….

미나 : 벌써 30분이나 지났어? 현우한테 다시 한 번 전화해 볼게.

어, 현우야, 왜 아직 안 와? 뭐? 어디에 있다고? 신천? 아니야,

약속 장소는 신촌이야, 신촌!



p 125

CD 50



p 141

CD 57

그때는 짧은 치마가 유행이었어

엄마: 가은아, 너 그 치마 새로 샀니?

가은 : 네. 예쁘죠?

엄마: 예쁘긴 한데 너무 짧잖아. 좀 긴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가은 : 엄마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엄마 치마는 더 짧던데요, 뭐.

엄마: 그때는 짧은 치마가 정말 유행이었어. 모두 짧은 치마만 입고

다녔어. 여보, 그렇죠?

아빠 : 하하! 그래, 그때 여학생들이 입던 치마는 지금 너희들이 입는

것보다 훨씬 짧았지.

가은 : 아빠, 아빠 대학생 때 사진도 보여 주세요.

아빠 : 그럴까? 어디 좀 찾아보고.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은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가은 : 하하! 아빠, 아빠 머리가 왜 이래요? 좀 이상하다.

엄마: 하하! 그때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

가은 : 그랬구나. 아빠, 엄마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죠? 그때는 만나면

뭐 했어요?

아빠 :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나 도서관에 가곤 했어.

가은 : 도서관이요? 음, 정말 재미없었겠다. 극장에도 안 갔어요?

엄마: 극장에도 가끔 가긴 했지만 비싸서 자주 못 갔어. 돈도 별로

없고 특별히 갈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거나 캠퍼스를 돌아다녔지.

가은 : 아빠, 아빠는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아빠 : 5월에는 학교마다 축제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 학교 축제에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가은 : 엄마는요?

엄마 : 엄마는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데모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가은 : 데모요?

엄마 : 어, 그때는 사회 문제 때문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곤

했거든.

가은 : 엄마도 데모를 했어요?

엄마: 그럼, 그리고 데모 때문에 선배나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도 많이

행지

가은 : 지금 대학생들과 정말 많이 달랐네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카밀라: 한스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한스 : 어.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카밀라 : 저 이 동네 살아요. 여기로 이사 온 지 3개월쯤 됐어요.

한스 : 아, 그래요? 몰랐어요, 운동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카밀라 : 네, 올해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좀 해 보려고요.

한스 씨는 언제부터 운동하셨어요?

한스 : 저는 작년 초부터 시작했어요.

카밀라: 그래요? 오래되셨네요. 운동하니까 좋아요?

한스 : 네,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카밀라

씨도 운동한 지 오래되셨어요?

카밀라 : 저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요.

한스 :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카밀라 : 그래도 1년이나 하셨잖아요.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데,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잘 못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곤 해요.

한스 :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꾸준히 하면 되죠, 뭐.

카밀라: 그럴까요? 이번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어요.

한스 씨는 올해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한스 :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봄에

열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갈까 해요.

카밀라 : 하프 마라톤 대회요? 와! 멋있다! 저도 나가고 싶어요.

하스 : 네?

카밀라 : 우리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한 시간씩 연습해요.

우리 1등도 할 수 있겠죠? 1등 하면 너무 좋겠다. 1등 하면

상이 뭐예요?

한스 : 제주도 여행 티켓이긴 한데…….

카밀라 : 제주도 여행 티켓이요? 그럼, 우리 빨리 연습해요. 그런데 좀

힘드네요. 한스 씨, 좀 천천히 가세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뛸까요?

한스 : 저, 카밀라 씨, 하프 마라톤은 카밀라 씨한테는 아직 힘들 것

같아요.

아직 10분밖에 안 뛰었는데…….

카밀라: 어어!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아유!